



꿈꾸고, 행동하고, 창조하라

날카롭고 올바른 문제의식의 발견

세상을 밝히는 발명과 특허 이야기

발명특허

VOL.445
2014
MARCH·APRIL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전문정보지 [발명특허]는 한국도서잡지윤리위의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는 본회의 견해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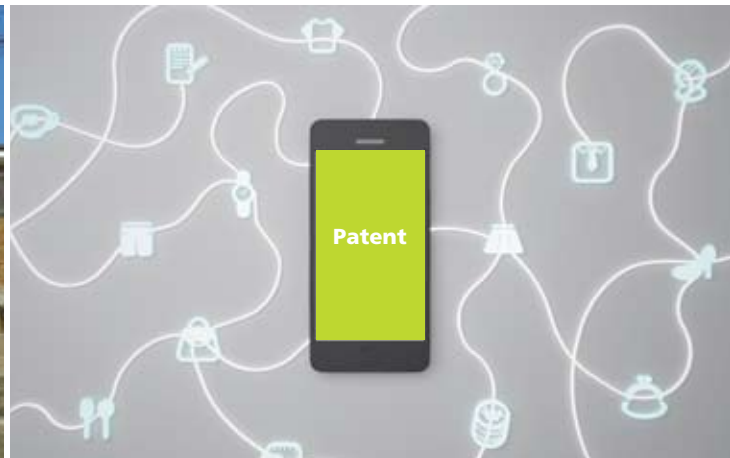
발행일 | 2014년 4월 5일

발행처 | 한국발명진흥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발행인 | 김광림

편집·기획 | 한국발명진흥회 기획팀 박선민(02.3459.2727) www.kipa.org

편집디자인·제작 |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CONTENTS

**꿈꾸고,
행동하고,
창조하라**

06
IMAGINATION

소년이 만든 장난감,
소중한 목숨을 구하다

08
ACTION

공감으로 소통하라!
- 2014년 한국발명진흥회 전사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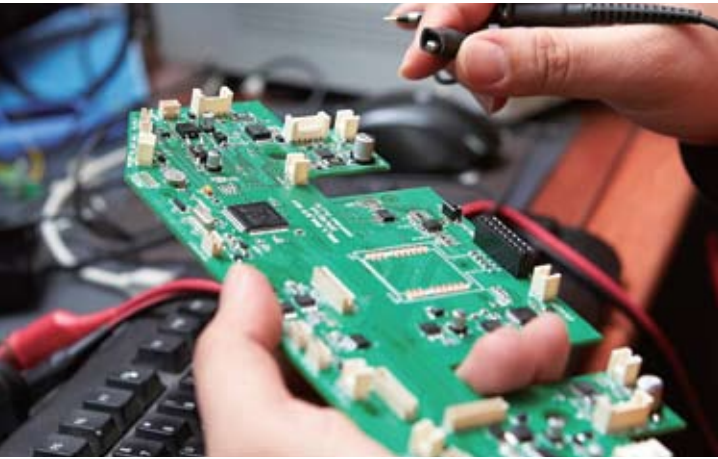
10
CREATION

명석한 두뇌와 따뜻한 마음,
세상을 바꾸는 착한 기술을 탄생시키다



Cover Story

- 아이작 뉴턴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물리적 원천인 만유인력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오직 뉴턴만이 그것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태초 이래 인간에게 숨겨져 왔던 비밀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도 우연을 우연이 아니게 받아들여보세요. 발명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니까요.



14 IP FOCUS

- ①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무효가 된 '애플특허'
- ② '뜨거운 감자'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 ③ 창조경제를 위한 유통화폐 '지식재산'
- ④ 여러 건의 아이디어를 특허출원하셨나요?

30
발명가 사람들
'지식재산으로 연결된 세상'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다

34
무한상상 인터페이스
지역 브랜드 육성 노력에 박차를 가하다
- 안동지식재산센터

38
융합 콘서트
색을 향한 과학과 예술의
끝없는 향연

40
지식 더하기, 기술 나누기
장판 청소하는 로봇,
국내 소비자들을 사로잡다 - (주)마미로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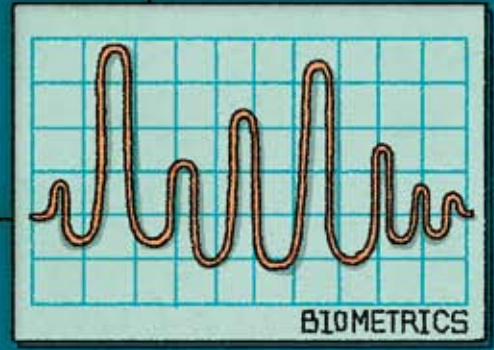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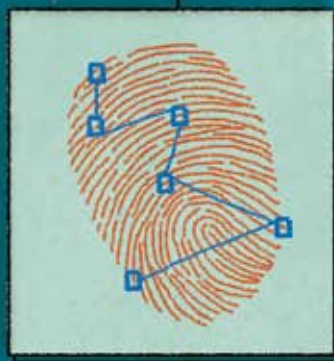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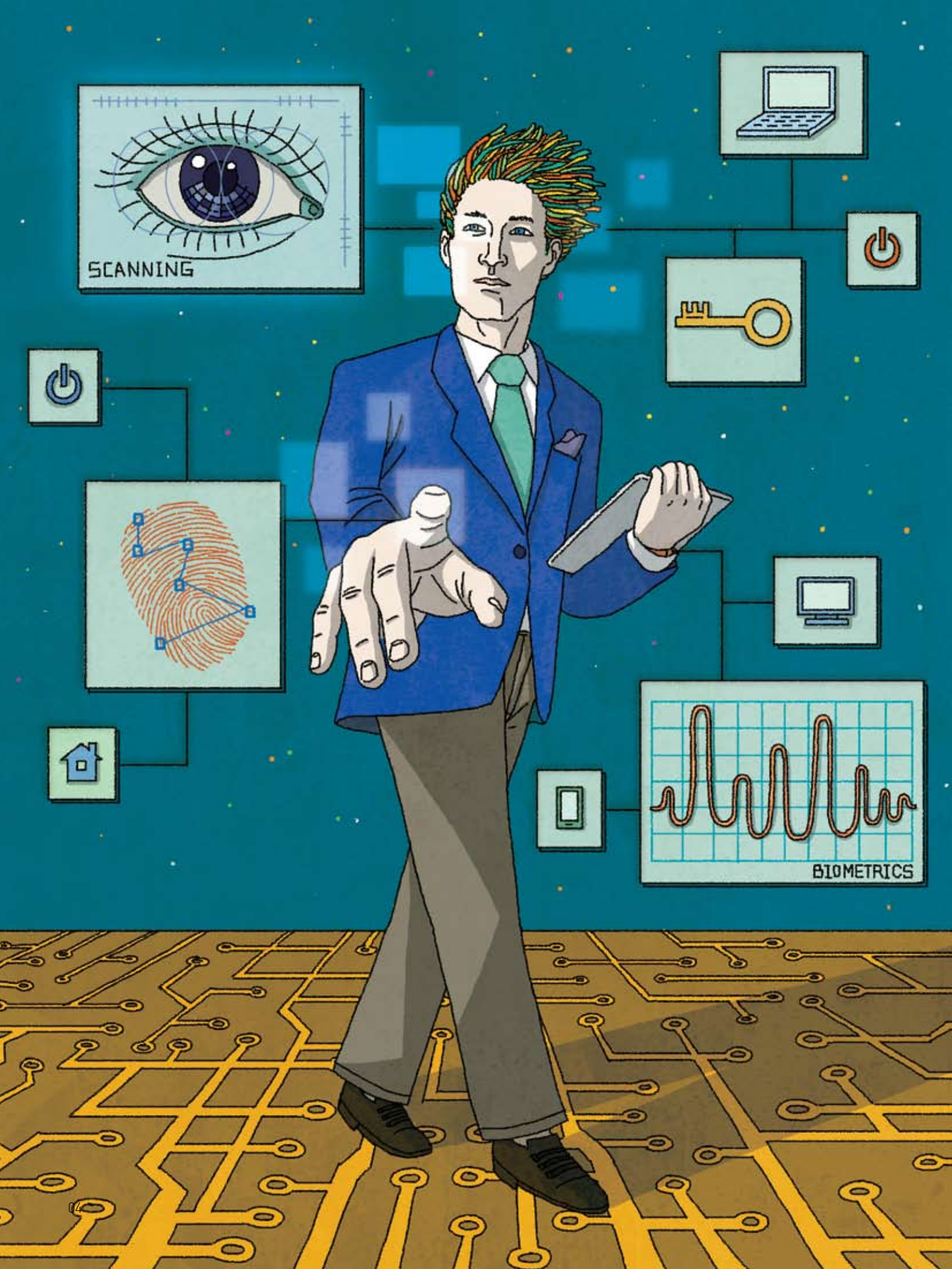
44
생활 속 발명이야기
젊음과 패기로 도전하는 21세기 에디슨

46
IDEA 공작소
일과 생활의 사이,
벽을 허무는 공간을 탐사하다

50
글로벌 동향

54
IP NEWS

58
KIPA NEWS





생체인식기술(Biometrics)이 현실로? 인체의 정보로 보안을 주무르다

보안기술은 1990년대의 시스템 보안, 2000년대의 네트워크 보안을 거쳐 2010년대에는 개인정보 보안으로 주 관심사가 이동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위·변조에 따른 정보유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와 관련하여 '생체인식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생체인식기술은 개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지문, 홍채, 안면, 음성 등 고유한 생체 정보를 보안 시스템에 활용하는 것이다. 비밀번호를 기억하거나, 열쇠를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사용자 자체가 패스워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조나 복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이 가운데 지문인식 기능은 이미 보편화됐다. 애플은 지난 9월 출시한 '아이폰5S'에서 지문인식 기술을 활용한 잠금 홈 버튼을 탑재해 큰 인기를 얻었으며, 대만 HTC의 스마트폰 '원' 역시 지문인식 기능을 실었다. 팬택은 자사 고유의 지문인식 기능을 활용한 '시크릿' 시리즈 스마트폰을 올 하반기에 잇따라 내놓기도 했다.

홍채인식은 인간의 홍채가 사람마다 다른 점을 이용한 것이다. 공항 등에서의 범죄자 검거를 홍채 데이터베이스와 매치하여 활용하는 시스템과 사무실출입관리 등에 이용되는 보안용 시스템으로 나뉜다. 홍채인식은 지문인식에 비해 기술적으로 구현이 어렵고 개발비용이 높을 뿐 아니라 사용자가 불편해하는 단점으로 인해 아직 대중화가 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잠재력만은 매우 크다.

또한 심전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본인여부를 식별하는 심전도 인식이 있다. 심전도는 심장의 활동으로 생기는 전기적 신호를 나타낸 그래프로 개개인은 식별될 수 있는 고유한 심전도를 가지고 있다. 생체인식 시스템 연구개발 기업인 Bionym은 이 점에 착안하여 심전도를 인식하여 신원 확인이 가능한 팔찌 형태로 된 심전도(ECG) 인식 디바이스인 Nymi를 선보였다.

이렇듯 생체인식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이 기술을 스마트폰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생체인식기술은 더 가깝고 쉬운 미래가 될 것이다.

소년이 만든 장난감, 소중한 목숨을 구하다

날카롭고 올바른 문제의식의 발견 ①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바꾸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외부에서 물리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행복의 주체가 되는 구성원들의 내면에 있는 행복을 발견하고 끄집어내게 하는 것이다. 후자가 비용도 적게 들고 부작용도 적다는 점에서 훨씬 경제적이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빠른 실현 방법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부터 그 방법을 발견하고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다. 달라이 라마는 이것을 현명한 이기심이라고 불렀다.

글_ 송인혁 TEDxSeoul 오거나이저 · <스파크> 저자

문제의식,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발명도 마찬가지다. 발명에 접근하는 자세에도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반대로 나의 삶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경제적이고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발명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영감은 그 순간에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지만 그것의 진정한 가치는 삶이라는 여정에서 자신이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부터 숙성된다.

나 자신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문제의식은 열정의 다른 이름이며 호기심의 원천이다. 남의 것이 아닌 자신의 문제의식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때, 문제의 이면을 깊이 아우르는 발명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순간의 계기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붙들며 매고 있는 어떤 고통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문제를 그저 비판하고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며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을 찾을 것인가. 발명은 바로 이 지점에서 탄생하는 것이다.

사람을 구하는 아이디어 마인 카폰(Mine Kafon) •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난 마소드 하사니(Massoud Hassani)는 어렸을 때부터 딱히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야 했다. 그가 가장 좋아했던 장난감은 바람의 힘으로 굴러가는 공이었다. 밤송이 모양의 이것은 중심에서 뻗어나간 얇은 기둥들의 끝에 납적한 모양의 종이나 플라스틱을 붙여 최대한 바람에 닿는 면적을 넓혀 계속해서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에는 미소 분쟁으로 인해 곳곳에 숨겨진 지뢰가 너무 많았다. 죽음이 늘 주변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마소드의 아버지도 지뢰로 인해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 가족들은 위험한 아프가니스탄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된다.

한편 국제 연합(UN)과 국제 적십자 위원회는 오래전부터 대인지뢰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하지만 지뢰는 전 세계 60여개 국가에 걸쳐 설치되어 있고 그 수만 1억 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승산이 없는 게임에 가까웠다. 자칫 잘못하면 인명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제거하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무인기계로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그것을 폭발시켜서 제거하다보니 폭탄과 함께 박살나는 기계를 무한정 공급할 수도 없어 나서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마스드는 달랐다. 어느새 대학생이 된 그는 아픈 기억을 토대로 지뢰를 제거할 혁신적인 방법을 고안해낸다. 어릴 적 가지고 놀았던 밤송이 모양의 장난감이 떠오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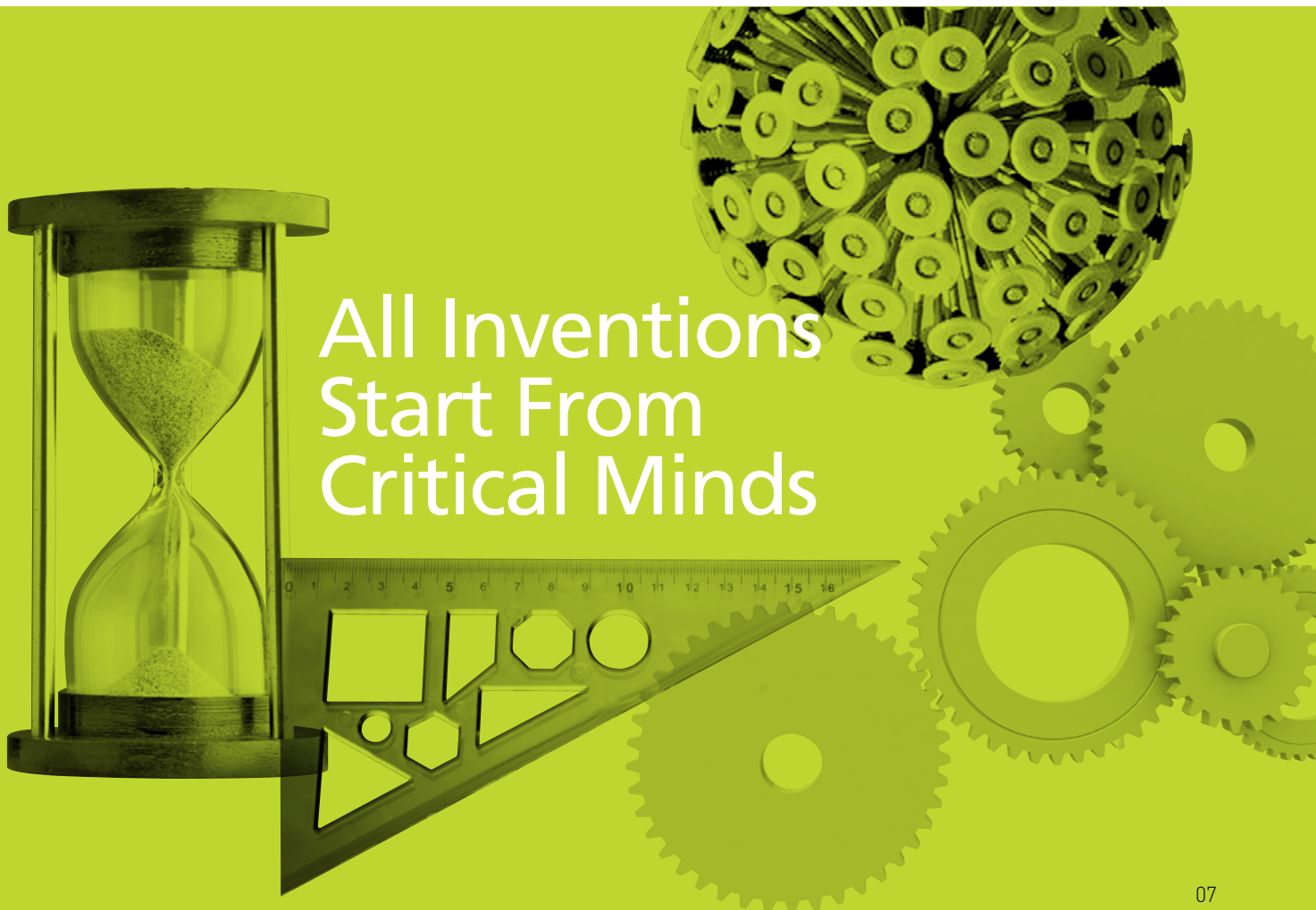
그는 즉시 프로토타입을 그렸고 곧바로 시제품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작품이 바로 '지뢰가 폭발한다'는 뜻을 가진 마인 카폰 (Mine Kafon)이다.

사람이 조종할 필요가 없는 마인 카폰은 지뢰가 매설된 광야나 사막 등을 바람에 따라 움직이면서 지뢰를 폭발시킨다. 지뢰가 터져도 그 힘은 대나무로 만든 구체에 고루 분산되며 일부만이 부서질 뿐 굴러가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파괴된 부분의 대나무와 플라스틱판은 간단히 교체가 가능하다. 또한 마인카폰은 대단히

저렴하다. 첨단기술이 필요 없는 그야말로 탁월한 발명품이었고 그의 발명은 세계인으로부터 놀라운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문제 의식은 에너지이다. 그것은 나 자신으로부터 끊임없이 솟아나는 의식이고 문제의 이면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여정의 근원이다.

놀라운 점은 나 자신의 문제가 절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마스드처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세상에 보여주었을 때 우리는 관련 이슈에 가장 특별한 존재로서 주목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에 공감하는 이들의 동반자로서 새로이 거듭나게 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세상의 트렌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내면이다. **발명특허**



All Inventions Start From Critical Minds

항상 새로워지는 조직의 비밀 “공감으로 소통하라!”

날카롭고 올바른 문제의식의 발견 ②

2014년 한국발명진흥회 전사 워크숍

지난 2월 14일 한국발명진흥회 전사 워크숍이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은 부서와 직급의 벽을 허물고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조직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총 150여명의 KIPA인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모두의 신뢰와 협동이 빛났던 '2014 워크숍'의 열띤 현장을 지금 공개한다.

듣고, 즐기고, 소통하자 • 서울에서 1시간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충남 천안에 위치한 상록리조트. 아직 찬 기운이 말끔히 가시지 않아서인지 날씨는 다소 쌀쌀했지만 햇살만큼은 완연한 봄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상록홀에 모인 KIPA인들은 가장 먼저 임직원과 부서, 직급을 고려해 배분해 팀을 나누었다. 20명 내외로 배분된 총 8개 팀은 도전팀, 창의팀, 고객팀, 전문팀, 투명팀, 3.0팀, GWP팀, 문화팀으로 한국발명진흥회의 핵심가치와 현 정부 키워드를 이용해 팀명을 정했다.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며 조은영 부회장은 “1박 2일 동안 임직원들이 부서 직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력하기를 바란다”며 “서로를 알아가는 행복한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뜨겁거나 혹은 자유롭거나 • 오후 2시 30분, 작업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조직의 효율을 높이는 조직개발 기법인 팀 빌딩(team building)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첫 번째 팀 빌딩은 'Time Pressure'였다. 팀별로 주어진 시간 내(400초)에 6개의 미션(볼바운딩, 공동체달리기, 블랙홀, 쿵쿵따, 파이프릴레이, 단체줄넘기)을 완수하는 것으로,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게 미션을 수행하는 팀이 우승을 차지하는 게임이었다.

6개의 미션은 만만치 않았다. 여기저기서 한숨이 터져 나왔고, '과연 잘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그 중 가장 난해한 미션은 블랙홀이었다. 9개의 구멍이 뚫린 붉은 천 위에 테니스공을 놓고, 공이 구멍으로 빠지지 않도록 조절하면서 목표 지점까지 이동하는 것이었다. 고도의 집중력과 협동심을 필요로 하는 미션이었다. 다음은 단체줄넘기였다. 긴 줄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9명이 호흡을 맞춰 뛰는 것 또한 쉽지 않았다.

하지만 연습시간이 끝나고 실전에 돌입하게 되자, 전 팀이 400초 내에 모든 미션을 수행했다. 1등은 250초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낸 '창의팀'이 거머쥐었으며, 2등은 '도전팀', 'GWP팀', '투명팀'이 차지했다.

두 번째 팀 빌딩은 'Wish Balloon'이었다. 팀별로 풍등을 만드는 이번 미션은 2014년 개인과 팀의 소망을 적어 하늘로 띄어 보내는 것이었다. 1시간 정도의 제작 시간을 거쳐 완성된 풍등 16개는 모두의 염원을 담아 공중으로 떠올랐다. 어두웠던 밤하늘이 아름답게 수놓아졌다.

첫째 날의 모든 프로그램이 끝난 후, 만찬 및 부대행사가 이어졌다. 특히 2014년에 새로 입사한 4명의 신입사원이 준비한 '도전 발명왕'이라는 미니 콩트를 선보여, 선배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01



03



04



02



05

01 상록홀에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 부서와 직급을 고르게 배분해서 팀 배정을 했다. 이후 조은영 부회장의 인사말씀이 이어졌다. 02 2014 한국발명진흥회 전시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찍은 단체사진. 03 테니스 공을 이용해 판 위에서 10회 튀기는 '볼바운딩' 미션. 04, 05 두 번째 팀 빌딩 'Wish Balloon'. 임직원들은 풍등에 적은 소망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며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강한 조직이 되기 위한 노력 • 둘째 날이 밝았다. '훌륭한 일터를 만들어가는 이 시대의 주역들'을 주제로 'GWP 코리아' 조미옥 대표의 강연이 열렸다. 훌륭한 일터의 의미 및 우수 사례 그리고 GWP 조직문화와 성과, 우리 일터의 현주소에 대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조 대표는 "일하기 좋은 일터(GWP)란 조직 내 신뢰(TRUST)가 높고, 업무에 대한 자부심(PRIDE)이 강하며 즐겁고(FUN) 보람 있게 일하는 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GWP의 근간은 신뢰"라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짧지만 강렬했던 1박2일의 워크숍이 막을 내렸다. 앞으로도 한국발명진흥회는 행복한 일터 구현을 위한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에는 전 직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워크숍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특강 강사 Pool을 운영해 강의 만족도를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발명특이**

명석한 두뇌 따뜻한 마음, 세상을 바꾸는 착한 기술을 탄생시키다

날카롭고 올바른 문제의식의 발견 ❶

이상목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한국의 스티븐 호킹. 몇 년 전, 이상목 교수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얻게 된 수식어다.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인 그는 학생들에게 과학자로서의 태도를 알려주기 위해 함께 미국으로 지질탐사를 나서다가 차량 전복으로 인해 목 아랫부분을 움직이지 못하는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다. 그는 키가 큰 건장한 사내였다. 그런 그가 한 번의 사고로 평생 휠체어에 앉아 지내야 한다는 사실은 지금껏 접해본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난이도였다. 수학 문제를 풀어내는 것은 자신 있었다. MIT 유학시절 논문자격시험도 단번에 합격했던 그다. 하지만 이걸 급이 다르다.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총체적 난국의 문제는 예상해 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삶’이라는 커다란 ‘문제 덩어리’ • 몇 번의 부정과 좌절을 오간 후, 그는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삶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사실 그는 단답형이 아닌 응용형 문제에 능한 사람이 아니던가.

인생이 커다란 문제지라면, 순수과학은 이것을 작게 축소한 또 다른 문제지라고 할 수 있다. 순수하게 자연현상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어떤 실리나 실용적 쓰임이 주목적이지 아니라는 점에서 인생과 순수과학은 그 모양새가 매우 비슷하다. 그래서 그는 과학이 좋았다. 처음엔 큰 고민 없이 해양학자가 되고 싶었지만 한국을 넘어 보다 넓은 미국 땅에서 공부하는 동안 과학이 무엇이며 어떻게 고민하고 탐구해야 하는지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를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에게 강조한다. 네가 본 문제는 과연 무엇이니, 라고 물으며,

“저는 기초학문을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기초학문이 중요한 이유는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어요. 산업계에서는 왜 학교에서 산업현장에 필요한 것을 가르치지 않냐고 해요. 그러면 전 이야기하죠. 학교라는 곳은, 당신들이

부러먹을 사람을 양성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답 없는 문제를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을 훈련시켜 앞으로 생겨날 문제에 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생각할 수 없는 미래의 문제에 답을 제시할 수 있는 해결사를 기르는 게 우리의 목표죠.”

당장 돈을 벌기 위해 ‘조작된’ 머리는 결국 ‘벌이의 목적’이 눈앞에서 사라질 때 가동을 멈춰버리게 된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이유가 없 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디 인생이란 것이 돈벌이로만 정의내릴 수 있는 항목인가. 때론 전혀 실용적으로 보이지 않는, 아니 오히려 경제관념을 갇아먹는 문제들이 우리에게겐 더 선적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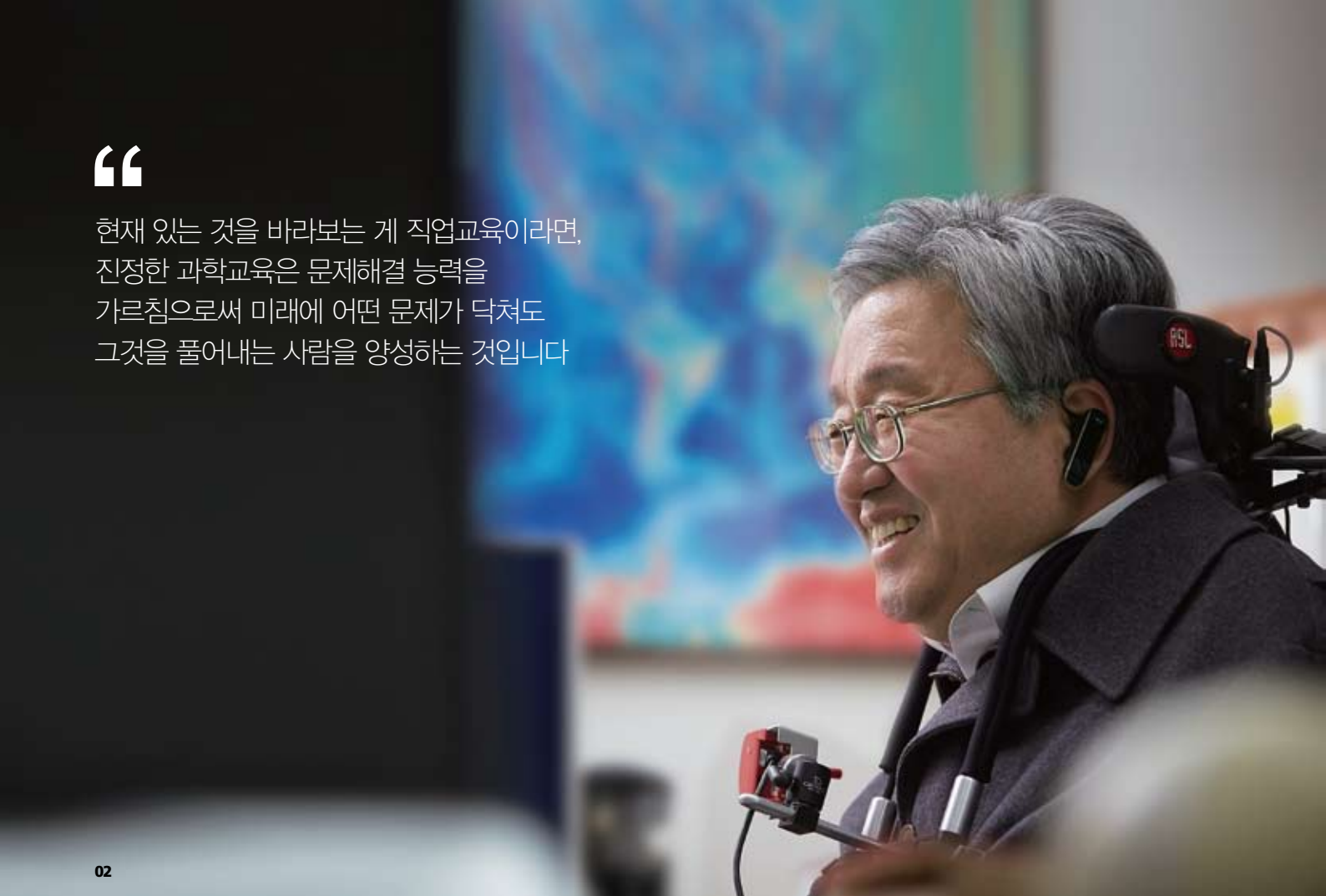
장애인을 위한 물건을 만들다 • 이상목 교수는 현재 국민편익 증진 기술개발사업(QoLT, Quality of Life Technology)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QoLT 산업기술지원센터’의 센터장을 역임하고

01 이상목 교수는 현재 교수로서, 학자로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재활과 독립을 돕는 여러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현재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게 직업교육이라면,
진정한 과학교육은 문제해결 능력을
가르침으로써 미래에 어떤 문제가 닥쳐도
그것을 풀어내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02

있다. QoLT는 지식경제부가 기술혁신사업을 이루기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장애인을 위한 기술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10년 6월 출범 이후 장애인들의 이공계 분야 롤 모델을 창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 중이다.

“저는 9년 전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됐어요. 그런데 7년 전 쯤 언론의 주목을 받게 돼 본의 아니게 유명인이 됐죠. 당시 한 신문에 글을 기고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 필요한 기술에 대한 글이었죠. 우리나라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어요. 글이 나간 후, 당시 산업부의 한 과장님이 전화를 주셨더군요. 함께 일을 하고 싶다면서요. 장애인을 위한 발명품 개발사업을 10년 동안 진행하기로 했고,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어요.”

당시 그는 장애인이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장애인으로 살아온 삶이 아니었기에 막상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지 못했다. 그는 “한 마디로 전문가도 아닌 사람에게 큰 역할을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누가 저에게 이런 문제를 던지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 과학교육을 받은 과학자잖아요. 새로운 문제를 던졌을 때 그것을 풀어낼 자신은 있거든요.(웃음) 이번 사업 역시 문제를 잘 풀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 결과 꽤 성공적으로 문제를 풀어왔고 앞으로 사업을 연장하자는 제안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결국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의 차이다. 이상목 교수는 “현재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게 직업교육이라면, 진정한 과학교육은 문제해결 능력을 가르침으로써 미래에 어떤 문제가 닥쳐도 그것을 풀어내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라며 “나는 평소 바다 속 지진과 화산이라는, 답도 없는 어려운 기초학문에 머리를 굴린 사람이다. 이 머리로 여러 장비를 개발하는 문제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했다.

목소리 없는 학생, 그만의 목소리를 갖다 • QoLT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발명품을 공모 받고 있다. 해외에 비해 장애인을 위한 생활기반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에서 그들만을 위한 좋은 발명품을 만드는 게 쉽지 않지만 곳곳에서 보석 같은 제품들이 제안되기도 한다. 이 중 가장 인상 깊은 발명품은 목소리가 없는 학생에게 그만의 목소리를 만들어준 보이스 기기였다.



03



04



05



06

“김진솔이라는 장애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 어릴 때 교환교수인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갔다가 열병을 앓은 이후 지금까지 말을 못 해요. 몸도 부자연스럽고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죠. 진솔이 같은 학생을 위해 AAC(AAC,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라는 보조기기를 사용합니다. 목소리가 없는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돼 주는 거죠. 태블릿PC 등에 원하는 그림이나 글자를 찍으면 컴퓨터가 사람 목소리로 이야기해줘요. 하지만 실제 장애인은 남성인데 목소리는 여성의 것이라든가, 혹은 아이의 목소리로 나오는 등 사람과 목소리의 매칭이 맞지 않아 사용자의 불편함이 있었죠. 듣는 사람도 어색하고요.” 김진솔 학생의 친구들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해 주고자 그의 아버지와 형의 목소리를 녹음한 후 합성해 김진솔 학생의 목소리를 만들어줬다. 그의 고유 목소리가 탄생한 것이다. 그 발명품의 이름은 '진(眞)소리'다.

“스티븐 호킹은 기계음에 가까운 목소리가 나오죠. 바꾸고 싶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이미 스티븐 호킹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바꾸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목소리는 사람의 인상과 이미지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일반인에게는 사소하지만 그 사소한 것이 장애인에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작은 점들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발명품들이 더욱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QoL을 통해 나온 아이디어 중 25개의 아이디어가 특허 출원 중에 있다. 법 테두리 안의 탄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출원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재산은 문제 해결의 고민을 담은 결과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문제를 놓고 끝없이 사소한 사람들의 노력이 법으로 보호돼야겠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연구를 더욱 진행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식재산 보호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많은 발명품이 제안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분야에서 앞으로 필요한 인재는 머리만 좋은 것이 아닌, 타인에 대한 사랑을 함께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사랑을 지닌 사람의 시선은 반드시 진정성을 지니고 있을테니. 그 시선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따뜻한 기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상목 교수가 그러한 것처럼. **발명특이**

02 이상목 교수는 “장애인을 위한 기술개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통한 세상 바꾸기’를 지향한다”고 말한다. **03** 보조기기개발 수업 중에 학생들과 함께 **04** 김진솔 학생의 친구들이 발명한 보이스 기기 ‘진(眞)소리’. **05** 사이클형 보조기기가 장착된 하지 운동 시스템 디자인 개념도. **06** 휠체어 사용자 탑승편의를 위한 복지시트.



IP FOCUS 01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무효가 된 ‘애플 특허’

■ “스티브 잡스가 2007년 1월 아이폰(iPhone)을 세상에 공개한 프레젠테이션이 애플 특허를 무효로 만들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시연한 행위가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독일에서 특허가 무효로 되었다”

- 2013. 9. 26 포스 페이턴츠



바운스 백 특허, 미국에서는 유효하지만 독일에서는 무효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www.fosspatents.com)는 2013년 9월 26일에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독일 특허가 무효화되었다고 소개했다. 이 특허는 2007년 8월 31일에 특허출원되었으며,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공개 행사는 2007년 1월이었다.

이 독일 특허는 애플과 삼성의 특허 분쟁에 사용될 만큼 중요하고 유명한 것이었다. 바운스 백(bounce-back) 효과, 즉 스마트폰에 저장한 사진을 손가락으로 넘길 때 맨 마지막 사진에 도달하면 화면이 더 이상 넘어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용수철처럼 튕겨 들어가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유럽특허 EP 2 059 868의 도면을 살펴보면, 왼쪽 방향으로 사진을 넘길 때, 오른쪽 끝부분(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끌려나오다가 다시 튕겨져서 오른쪽 방향으로 화면이 돌아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발명은 스마트폰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독일 특허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특허를 무효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원인도 아닌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이 독일 특허가 무효로 된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접하게 되는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국제 연구소의 홍길동 연구원은 논문을 발표하고 특허출원을 진행하려 한다. 홍길동 연구원은 자신의 발명에 대하여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제가 논문을 발표한지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연구소의 김한국 연구원이 저의 논문 발표 이후에 먼저 특허를 출원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논문을 먼저 발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요?”

하지만 이런 질문에 대하여 보통은 시무룩한 답변이 돌아온다. “논문을 발표한 것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특허출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다른 연구소에서 특허출원을 먼저 했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음부터는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특허출원부터 하시면 안 될까요?”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시연과 홍길동 연구원의 논문 발표는 특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을 시연하면서 특허를 받는데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홍길동 연구원은 자신의 논문 발표로 인하여 스스로 개발한 기술을 선점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자신의 논문 발표를 통하여 이 기술은 자신이 개발한 것이라고 세상에 널리 알렸으니 자신이 이미 어떤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오해이다. 특허 제도의 본질을 생각해보자. 특허를 출원하면 그 기술 내용을 공개하는 대가로 독점배타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독점배타권이라는 ‘보상’을 받기 위하여 발명자나 회사는 특허출원을 하게 되고, 특허에 관한 기술이 공개되어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즉, 특허 제도는 사회 발전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독점배타권이라는 보상을 유인책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논문 발표나 제품의 시연은 자신의 명예와 회사의 홍보에 보탬이 되지만, 어떠한 권리가 발생되지 않아 발명자나 회사는 적극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적극적인 공지행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세상에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중복적인 연구와 개발이 생겨난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술 발전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허 제도는 논문 발표나 제품의 시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오히려 먼저 특허출원한 자를 보호하고, 특허 제도에 의하여 기술 내용이 세상에 신속하게 공개되기를 원한다. 즉, 발명자나 회사가 공지행위를 하기 전에 특허출원을 먼저 진행하기를 권장한다. <특허의 지식>의 저자 다케다 가즈히코(竹田和彦)는 특허출원 전 공지행위에 대하여 '자살발명'이라는 거친 표현을 사용했다.

특허출원 전 발명 공지에 대하여 예외 규정을 두다 • 이러한 논리는 기술을 개발한 발명자나 회사에게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이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그나마 구제책을 두고 있다. 이른바 '공지예외적용' 제도라 한다. 나라마다 상이하지만 제품의 시연 또는 논문을 발표하지 6개월 또는 1년 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특허제도는 1년의 기간 동안 유예기간(grace period)을 두고 있다. 일본, 중국 및 유럽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다. 이 유예기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공지 행위에 대하여 예외로 인정할 것인가이다. 한국, 일본, 미국은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세상에 공개하면서 시연하는 행위와 홍길동 연구원이 논문을 발표하는 행위도 특허출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유럽은 이러한 공개행위가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지면

특허를 받을 수 없거나 특허를 받더라도 무효가 된다. 이러한 차이 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각 나라마다 특허 제도를 운용하는 정책상의 이유에서 기인할 뿐이다.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시연 행사가 미국 특허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유럽(독일) 특허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시연 행사를 진행할 때, 이미 중국과 유럽에서 특허를 받는 것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공지에외적용을 받기 위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허를 출원할 때 이러한 공개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표시하여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발명자나 출원인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에는 발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런 부담을 주지 않고 당사자 간 분쟁에서 추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앞에서 홍길동 연구원이 논문을 발표하고 특허출원을 하였지만, 김한국 연구원이 홍길동 연구원의 논문발표와 특허출원 사이에 자신의 발명을 특허출원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될까? 김한국 연구원은 홍길동 연구원의 논문 발표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미 공지된 내용과 비교하여 특허를 심사하기 때문이다. 홍길동 연구원의 논문 발표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홍길동 연구원은 자신의 논문 발표만 있었다면, 논문발표 후 6개월 또는 1년 내에 이 사실을 밝히고 한국, 일본 등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김한국 연구원의 특허출원보다 늦게 출원되었다는



이유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논문을 발표하였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특허출원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미국은 아직 선발명주의적 요소가 남아있어 논문 발표한 홍길동 연구원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품 시연이나 논문을 발표한 것이 어떤 권리를 선점한 것으로 이해하여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공지에외적용 제도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한계점은 분명하다. 일부 국가(중국, 유럽)에서는 인정받기 힘들며, 다른 사람보다 먼저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발명을 공지하기 전에 특허출원을 먼저 진행하자.

발명 공지 전에 임시적으로 특허출원을 진행하자 • 제품을 시연하거나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특허출원을 하는 것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특허출원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발명자와 특허전문가가 상담하고 작성하는데 최소 몇 주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특허의 권리범위를 정해주는 청구항 작성은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든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제품 시연이나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특허출원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안이 필요하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시연하기 전에 할 수 있었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연할 내용을 있는 그대로 임시출원(provisional application) 방법으로 미국 특허청에 제출한다. 임시출원은 말 그대로 임시로 출원일을 만들기 위한 출원 방식일 뿐이다. 임시출원에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없어 발명 내용을 가공 없이 특허청에 제출해 놓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임시출원이 완료되면 필요한 공지 행위를 한 후에 정식으로 출원 명세서를 작성하면 된다. 임시출원을 우선권 주장하여 정규출원을 1년 내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임시출원 제도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임시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면 신규성 등의 특허성을 판단 받을 때 미국의 임시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어떤 공지행위보다 임시출원일이 앞서기 때문에 자신의 공지행위로 특허출원이 거절되지 않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 출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에서 임시출원을 진행하고 1년 내에 정규출원을 하면서, 다른 나라에 우선권 주장 출원을 제출한다. 다른 나라에서 신규성을 판단할 때 임시출원일이 고려되기 때문에 공지에외적용 제도를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러한 방법에 따라, 바운스 백 특허를 독일에 출원하였다면 독일에서 거절되거나 무효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임시출원을 기초로 국제출원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애플의 특허 EP 2 059 868도 국제출원이 되어 독일에 등록된 경우이다. 만일 이 국제출원이 미리 조치해 둔 임시출원을 우선권 주장하여 출원되었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홍길동 연구원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한국에서만 특허를 얻으려고 한다면, 절차가 복잡하기는 하지만 큰 무리가 없다. 한 가지 남은 문제는 김한국 연구원의 특허출원처럼 먼저 제출된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논문 발표 전에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다. 만약, 특허출원 명세서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청구항 작성은 추후에 천천히 고민하기로 하고, 논문으로 발표할 내용을 임시적으로 출원한다. 이를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라고 말한다.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 제도는 말 그대로 특허청구범위에 대해서는 작성을 생략하는 것이다. 미국의 임시출원과 다르게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는 정해진 양식에 맞게 작성하므로 좀 더 번거러움이 있다. 임시적으로 출원이 완료되고 논문을 발표한 후에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논문의 내용을 명세서의 양식에 적당히 맞추어 출원한 후에, 이 특허출원에 대한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을 진행한다. 논문의 내용을 명세서 양식에 적당히 맞추는 것은 몇 시간이면 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에서 제대로 된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용 태양으로 볼 때,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 또는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의 선출원은 미국의 임시출원과 유사하다. 한국에서 특허청구범위 유예제도를 이용하여 특허출원하는 것도 번거로울 수 있다. 특허명세서 형식에 맞추기 부담스럽다면, 미국에 임시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 미국의 임시출원은 언어의 종류에 대한 제한도 없다. 한국어로 된 문서를 미국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물론 미국 대리인을 통해서 특허출원이 진행되며, 추후 번역문 제출이라는 절차가 별도로 있어서 비용 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한국 특허법에 미국 임시출원 제도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아이디어가 창출되면 곧 바로 임시출원을 진행하여 특허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공지에외적용 제도는 차선책일 뿐이다. 발명을 공지하기 전에 특허출원을 급하게 진행해야 한다면 임시적인 출원이라도 미리 진행하자. 이것이 최선책이다. 특허 출원일을 미리 확보하여 추후에 불필요한 논란을 없앨 수 있다. 발명특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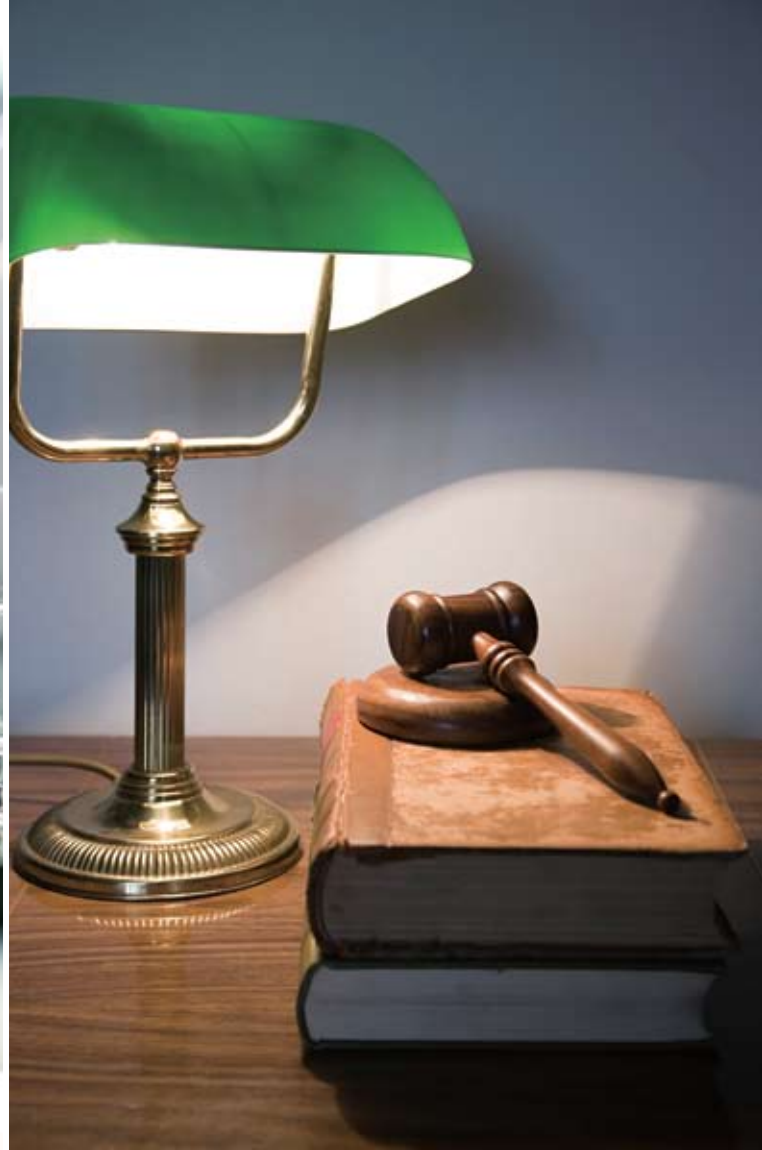
PATENT ATTORNEY ACT REVISION

IP FOCUS 02

‘뜨거운 감자’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변리사법 개정 내용과 개정 동향

- 최근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IP)이 세계경제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삼성과 애플 간 특허분쟁으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2013년 국정감사에서도 크게 화두가 됐다. 특히 특허소송에서 변리사를 공동 소송대리인으로 자격을 부여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허침해 소송대리인에 변리사 포함 추진 · 작년 7월 3일, 민주당 이원욱 의원 등 12인이 변호사로 한정된 특허침해 소송대리 업무를 변리사도 소송대리인으로 할 수 있게 하고, 변호사의 경우 변리사 연수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1905871)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특허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기술전문가인 변리사가 전문성을 상호 보완하여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필요성이 요구됐다. 현행법은 변호사와 소송대리만 인정하고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 소송대리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특허분쟁의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동 개정안은 변리사도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침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 제8조에서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이하 '특허등')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1961년 「변리사법」 제정 시 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특허등에 관련한 소송에 있어 변리사 소송대리권의 범위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특허등과 관련한 소송은 등록된 특허등 권리의 무효나 취소여부를 다투는 '심결취소소송'(행정소송)과 특허등 권리의 침해금지,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특허등침해소송'(민사소송)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현행법 제8조를 문언대로 해석하여 심결취소소송뿐만 아니라 특허

등침해소송에서도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변리사는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므로 심결취소소송에 한정하여 소송대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8조에 따른 변리사의 소송대리는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되는 것으로 결정했다(2010헌마740, 2012.08.23).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 시 재판관 한 명은 보충의견으로 소송의 원활한 진행과 당사자 권익보호를 위해 변리사가 특허등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입법적 개선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동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보충의견을 반영하여 현행법 제8조를 개정하여 특허등침해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변리사의 특허 소송대리는 세계적인 추세 · 최근 세계 각국은 국제 간 특허분쟁 등으로 피해가 심각해지자 저마다 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변호사·변리사 공동소송대리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특허소송에선 특허기술에 대한 변호인의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소송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각 국의 변리사 소송대리 현황

구 분	심결취소소송 대리	특허침해소송 대리
한국	○ (변리사 단독)	× (변호사 단독)
	·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 대리 불가	
일본	○ (변리사 단독)	○ (변호사와 공동)
	· 특정침해소송 대리업무 시험에 합격하고 부기(附記)를 받은 변리사는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 가능(2003년부터)	
영국	○ (변리사 단독)	○ (법정변호사와 공동)
	· 특허변리사협회로부터 송무인가증을 받은 변리사는 법정변호사(Barrister)와 공동으로 소송대리 가능(2000년부터)하며, 특허지방법원에서는 변리사 단독으로 침해소송 대리 가능	
중국	○ (변리사 단독)	○ (변리사 단독)
	· 변리사 단독으로 소송대리 가능 ※당사자의 권리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따라서 특허대리인의 소송참여도 보장됨	
독일	○ (변리사 단독)	△ (변리사의 법정진술 가능)
	· 침해소송의 대리권은 없으나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리사가 소송에 참가하고 법정진술을 하며, 판결문에도 변리사 이름을 표기	
미국	· 자연과학이나 공학을 전공하고 특허대리인 자격과 변호사(Attorney) 자격을 동시에 갖춘 특허변호사(Patent Attorney)에 의해 대부분의 소송대리가 이루어짐	

자료 : 특허청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영국에서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를 인정하고 있고, 독일은 특허침해소송에서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리사가 법정 진술을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특허 변리사가 단독으로 소송대리가 가능하다. 미국은 일반변호사와 별도로 자격시험을 치르는 특허변호사가 있어 특허분쟁은 이들이 맡는다.

특히, 우리나라와 유사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체계를 갖추고 있는 일본의 경우 종전에는 변리사는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을 뿐 특허등침해소송에서는 보좌인으로 한정되었으나, 현재는 특허등침해소송에 대한 법원 절차의 충실과 신속화를 위해 일정한 조건하에 특허등침해소송 공동대리제도를 도입했다.

국회에서의 논의 상황 • 제17대 국회에서도 공동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청원이 제출되어 이에 대한 공청회(2005.6.22)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민주통합당 최철국 의원 등 12인(의안번호 175272, 2006.11.6.)에 의해 발의되어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 하였으나, 법사위에서 심의 중 국회 임기만으로 폐기된 바 있고,

제18대 국회에서도 역시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 등 10인(의안번호 1689, 2008.11.3.)이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여서 2번의 공청회(2009.4.16 등)를 개최한 후, 지경위에서 의결하였으나 역시 법사위 심의 중 국회 임기만으로 폐기된 바 있다.

현재 동 개정안은 작년 12월 10일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12월 12일과 올해 2월 20일에 법률안소위에서 두 차례 상정되었으나, 아직 제대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발명특허



장영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행정실장
(입법조사관/서기관)

INTANGIBLE- ASSET FINANCE

IP FOCUS 03

창조경제를 위한 유통화폐 ‘지식재산’

“창조경제를 위한 유통화폐는 지식재산이고, 지식재산이 없는 창조경제는 의미가 없다” 창조경제 전도사 존 호킨스 박사가 강조한 말이다. 즉, 지식재산(IP)이 곧 돈이란 의미다.

우리 정부가 주창하는 ‘창조경제’가 실현돼 마침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돼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대’를 상상해보자. 아무리 창조경제 시대를 맞이하더라도 실제 특허·상표·저작권이나 아직 권리화되지 못한 기술 등 IP가 유통 수단 이 될 수는 없다. 제품 구매 비용으로 특허 명세서를 내밀 수는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창조경제에서 IP는 어떻게 유통화폐가 될 수 있을까.

창조경제 유통화폐 IP, 흐름은 시작됐다 · IP를 창조경제 유통화폐로 치환시킬 때 주목해야할 것은 교환 수단(화폐)보다는 '흐름(유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금까지 IP는 정체적 성격이 강했다. 특허를 예로 들어보자. 한 기업이 연구개발(R&D)을 통해 특허권을 획득했다. 기업은 특허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한다. 20년 동안 연차료를 내며 특허권을 유지한다. 이 기업에게 특허라는 IP권은 제품에 들어간 기술의 보호 수단이며, 남에게 양도하기 어려운 기업 자산이다.

특허 라이선싱을 통해 다른 기업에게 막대한 기술료를 받아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이때 IP를 매개로 돈이 돌기 시작한다. 특허에 금전적 가치가 매겨지고 경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만약 기업이 특허권을 유지하는 것보다 판매하는 것이 더 이익이 남는다면 특허를 팔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최근 세계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인수합병(M&A)이나 매각, 파산 과정에서 특허에 가격을 붙여 파는 사례가 빈번하다.

IP가 유통화폐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특허권 매매 가운데 가장 진보된 형태가 특허를 주식처럼 활용하는 것이다. '시기가 이르다'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 등 일부 비판이 있지만 실제 미국에서는 '국제지식재산권거래소(IPXI)'를 운영하고 있다. IPXI는 특허권을 모아 단위별로 상장시켜 거래하는 시장이다. 수요자 입장에서 가격이 책정되며 IP 유통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이라 예측이 많다. 아직까지 수요가 크지 않아 시장이 커지진 못했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식 투자의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IP 시장에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 것"이라며 "IPXI 거래 시장에 위험 회피 전략이 구축되면 IP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특허 매매는 기업이 기술경쟁력과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구축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 직접 남들에게 없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 꼭 특허를 직접 사업화해야하나 질문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

한국형 창조경제 위해서는 IP 융·투자 체계 갖춰야 · 다시 창조경제로 돌아가보자. 한국형 창조경제는 국민의 아이디어를(권리화하여) 사업화한다고 명시했다. 정부의 생각은 이렇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산재돼 있지만, IP로 권리화하거나 사업화하는 전략이 취약하기 때문에 창조경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 IP권리 획득이나 사업화 멘토링 등 지원에 힘을 쏟는 이유다. 벤처확인·공시시스템 '벤처인'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벤처기업 수는 2만 9135개다. 2010년 처음으로 2만개를 돌파하고 곧 3만 벤처기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1인 창조기업, 스타트업, 기술기업과 벤처기업이 과연 자기 아이디어를 다른 기업에 넘겨 사업화하는 것을 원할까. 정부 등 외부 지원을 받더라도 제품이 시장에 등장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이 창업의 이유이자 절대 명제다.

이 기업에게 IP 매매는 큰 의미가 없다. 아이디어 하나로 기업을 성장시켜야 하는데 정작 권리화된 IP가 없다면 기업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 이때 필요한 것이 'IP 금융'이다. 지금까지 기업이 은행에서





Banking Institution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많은 자격이 필요하다. 경영실적, 직원 수, 설비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스타트업·벤처가 매출이 있을지 만무하다. 직원도 창업자와 동료 정도다. 지금까지 기업 금융 투자 방식으로는 스티브 잡스와 빌게이츠처럼 차고에서 컴퓨터 하나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를 꿈꾸는 젊은이를 세계 굴지 기업의 CEO 반열에 올려 놓을 수 없다. 사업화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 사업 성과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중국 등 해외 IP 금융 성과 속속 도출 • IP 금융은 기업이 가진 기술·IP를 보고 융·투자를 한다. 상품을 생산하지 못한 단계더라도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난감하다. 도대체 직원도 없고 상품도 없는 정체불명의 기업에게 어떻게 돈을 준단 말인가.

이웃나라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SIPO)은 지난해 '2013년 지식재산전략실시 추진계획 발표회'에서 2012년 특허권 담보 대출로 141억 위안(약 2조 4498억 원)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상표권은 214억 6000만 위안(약 3조 9368억 원), 저작권 27억 5100만 위안(약 5046억 원)의 담보 대출이 이뤄졌다. 한해에만 IP에 융자한 금액이 7조원에 이른다.

미국이나 영국은 민간에서 좀 더 관심을 보인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가운데 장래성이 엿보이는 청년 창업가를 찾는 벤처캐피탈(VC)이나 엔젤투자자들이 많다. 영국도 대학을 중심으로 기술 창업 기업을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우리나라는 이제 막 IP 금융을 향한 첫발을 내딛었다. 국가지식재산 위원회는 지난해 5월 'IP 가치평가·금융 정책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IP 금융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다. 산업은행도 지난해 9월 IP 담보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최근까지 200억 원 정도를 시장에 공급했다. 아직까지 해외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지만 금융권에서 IP 금융에 관심을 가진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금융위원회가 IP에 융·투자하는 은행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민간 시중은행에서도 IP 금융 시대를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다. 창조경제를 실현하려면 IP 금융이라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언급했듯 금융권이 IP만 보고 대출을 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다. 미국 IPX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것처럼 '리스크 헤징(risk hedging, 위험회피)'이 안 되면 금융권 입장에서 융자 자금도 회수하지 못한다.

3가지 전제가 나왔다. 창조경제를 실현하려면 IP 금융으로 창업 벤처 육성이 필요하다. IP 금융 주체인 은행이 IP를 담보로 돈을 주려면



위험을 없애야 한다. 벤처기업이 확보한 IP는 장래성이 불투명하다. 결국 물고 물리는 관계에 있는 딜레마에 빠졌다. 그저 IP 금융을 해야겠으니 은행에게 강제로 대출을 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IP 금융 딜레마 '가치평가 시스템'으로 풀자 • 얽히고설킨 문제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바로 'IP 가치평가 시스템'이다. 즉 벤처기업이 가진 IP가 얼마나 가치있는 것인가, 장래에 시장성은 있는가, 이 기업은 IP 사업화 능력이 적절한가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해 IP에 가격 책정한다. 책정된 금액만큼만 대출한다면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한국발명진흥회,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에서 이미 IP 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IP 금융을 활성화시킬 만큼 시장에 녹아들지는 못했다. 당연한 일이다. 아무리 신뢰성있는 IP 가치평가 결과를 내놓더라도 평가기관은 대출을 해주는 곳이 아니다. 은행이 외부 평가결과를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금융 공급자인 은행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IP 가치평가 시스템'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기존 IP 가치평가기관의 평가 및 거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민간 IP 거래기관, 금융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에서 IP 금융과 관련해 은행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최종적으로 은행이 자체적인 IP 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중국이 IP 금융에 성과를 낸 이유는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금융기관과 IP 서비스 기관이 협력해 IP 담보대출 방법을 개발해 적극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협력이라고 하지만 결국 금융기관과 IP서비스 기관이 전문성을 가지고 IP 가치평가 시스템 안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 창조경제를 위한 IP 금융은 주체들의 참여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금융권에서 얼마나 많은 IP 인재를 확보하고, 외부 전문가관과 정보를 교류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발명특어**



권동준
전자신문 기자

PATENT EXAMINATION NATION

IP FOCUS 04

여러 건의 아이디어를 특허출원하셨나요?

특허일괄심사제도 절차 소개

■ 새로운 콘셉트의 자전거를 개발했다고 가정해보자. 외부에 이 자전거를 출시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바로 새로운 자전거에 들어가는 기술들을 보호받기 위한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이다. 통상 하나의 제품에는 다양한 아이디어, 즉 다양한 기술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새로운 자전거에 수반되는 특허출원도 여러 개인 경우가 다반사다. 또한, 제품은 출시 예정일에 외부에 공개되는 반면, 제품과 관련된 복수개의 특허출원은 각각의 특허출원별로 특허청의 심사 결과를 받아 보는 시점이 상이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최근 특허청에서는 ‘특허일괄심사’ 제도를 도입해 작년 12월부터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심사청구제도 • 특허법 제59조에 의하면, 특허출원은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심사를 하고, 특허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누구든지 출원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특허출원을 한 모든 건에 대해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출원을 한 건 중에서 심사청구가 이루어진 건을 대상으로 특허청의 심사관이 특허법에 규정된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특허출원을 한 모든 건이 아니라 심사청구가 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특허출원 후 일정기간 동안 출원인 등에게 심사청구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일례로 방어적 목적의 특허출원의 경우, 출원인이 독점 배타적인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타인에게 권리가 부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상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다. 또한 관련 시장의 상황이 특허출원 시점과 그 이후에 서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원인은 특허출원을 하고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화되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심사청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우선심사청구제도 • 특허법 제61조에 의해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 중인 특허출원인 경우' 등과 같은 우선심사청구 대상에 해당되면 신청에 의해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특허출원을 하는 목적, 특허출원의 심사 결과를 받고자 하는 시점 등은 출원인 각각의 제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빠른 심사 결과를 원하는 출원인은 우선심사청구제도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심사처리기간보다 빨리 해당 특허출원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연도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2013년	13.2개월	7.7개월	7.3개월
2014년(목표)	11.7개월	6.5개월	6.5개월

출처 : 2014년 특허심사정책 추진내용(특허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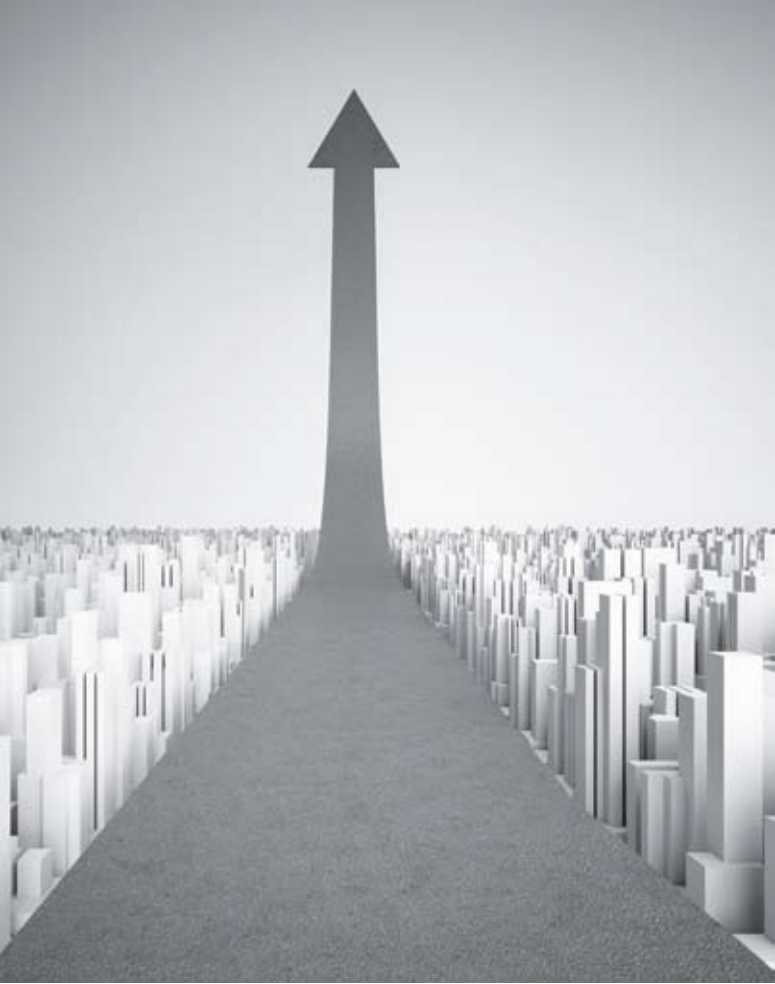
특허일괄심사제도의 개요 • 특허일괄심사제도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복수의 특허출원을 일괄하여 심사하는 제도이다. 즉 여러 건으로 나누어진 출원인의 복수 출원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서로 비슷한 시점에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등 복수의 출원에 대하여 신제품의 출시시기에 맞추어 일괄적으로 심사함으로써, 출원인이 신제품의 출시 예정 시점에 맞추어 이에 관련된 특허출원의 심사 결과도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특허·실용신안 출원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이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고, 상표·디자인 출원에 대해서는 금년 4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2014년 3월 10일자 전자신문의 기사를 보면, 특허일괄심사제도의 첫 신청 사례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팩, 배터리 케이스, 배터리 보호회로, 배터리 관리 장치 등 자동차용 이차전지와 관련한 13개의 특허출원에 대한 일괄심사 신청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도 2013년 4월 1일부터 특허일괄심사제도와 유사한 제도인 '사업전략대응정리심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신규 사업이나 해외 진출을 고려한 사업의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위한 복수의 출원(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관과 출원인의 면담에 의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출원인은 심사관에게 기술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알려줌으로써 정확한 심사와 거절이유의 자발적 해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발명특허**



김승보 팀장

‘지식재산으로 연결된 세상’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다



국제사업팀

지식기반 창조경제 생태계를 이끌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활용 가능한 지식에 대한 접근과 획득 그리고 적용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국의 지식재산 기관의 능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국제적인 연계성도 강화해야 한다.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최고의 자원인 지식 재산. 이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국제사업팀을 만나보자.



박희승 주임



유주현 계장



Aaron Chi 사원



임지나 주임



곽유미 전문위원



배재욱 과장대리



아이디어 샘솟는 지식재산 콘텐츠 공작소 • 국제사업팀은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수행되던 국제협력사업을 일원화하여 전담 추진함으로써 사업 시너지를 높이고자 올해 1월에 새롭게 신설된 부서이다.

국제사업팀의 수장인 김승보 팀장은 “기술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세계 경제의 역동성과 경쟁의 강도가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국제사업팀은 더욱더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사업팀의 주요사업은 WIPO, APEC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제 지식재산권 콘텐츠 개발 및 확산사업과 개도국 지식재산나눔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제 지식재산권 콘텐츠 개발 및 확산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배재욱 과장대리는 “2004년 WIPO Academy와 공동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MOU를 맺은 이래 지금까지 국내외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인재양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이 전 세계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되는 지식재산 •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선진국으로 성장하면서 크게 관심을 쏟는 국가들이 있다. 바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저개발국이다. 이들 국가는 경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가난과 빈곤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첨단기술보다는 물, 식량, 에너지 등 삶에 필수적인 기본 기술에 관심이 많다. 국제사업팀은 이러한 현지 상황에 맞춰 개도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정기술 보급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지식재산나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곽유미 전문위원은 뛰어난 적응력으로 개도국에 가서도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녀는 “맡은 업무가 개도국 지원 사업이다 보니, 저개발 국가의 저소득층 주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입사 후 줄곧 국제협력사업을 담당해온 유주현 계장 또한 “지난



2013년 지식재산나눔사업을 통해 적정기술 개발 완성품의 수혜국인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현지 전문가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92.8점의 높은 결과를 획득했다"며 "지구촌 많은 곳에서는 아직도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으며, 그들을 위해 우리가 제공하는 지식재산 중점의 적정기술들은 그들의 삶에 조그마한 빛이 되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제는 양량보다 질質이다 • IP 파노라마는 비즈니스 현장에서의 지식재산 활용전략을 다룬 이러닝 콘텐츠이다. IP 파노라마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임지나 주임은 "실제 실무에 유용한 지식재산 활용전략을 다양한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내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IP 파노라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0년부터 오프라인 교육 과정을 병행하는 프로그램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한편, WIPO 회원국의 개발 요청에 따라 UN 공용어인 이랍어(2009년), 프랑스어

(2010년) 및 스페인어(2010년)판을 비롯해, 태국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등 현재까지 무려 24개국 언어판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밖에도 한-WIPO 블랜디드 교육은 글로벌 비즈니스 경영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는 것으로, 국가별 지식재산권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지식재산권 전문 기관의 전문 강사를 통해 고품격 글로벌 지식재산권 비즈니스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특유의 긍정 에너지로 팀의 마스코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Aaron Chi 사원이 맡고 있다.

국제사업 연구, 방향을 묻다 • 이처럼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다 보니, 국제사업팀은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소통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국제기구 공동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영어구사능력은 물론 세계 각국의 협력파트너와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는 글로벌 에티켓 등 세련된 사교술이 필요하다.

박희승 주임은 "서로 의견을 내고 조합하는 과정 자체에서 생각지도 못한 창조적인 발상이 나올 때가 있다"며,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팀원들 간에 서로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지나 주임은 "업무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무척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며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곱절의 시간과 영어사전이 꼭 필요하지만, 우리 국제사업팀만의 특징이자 강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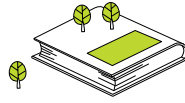
이외에도 업무능력의 향상을 위해 매주 1회 문서작성방법과 영어로 이메일 잘 쓰는 방법 등 각자의 업무와 관련된 크고 작은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최신 트렌드에 맞추어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 나이가 다가 비슷하고 활발한 성격의 팀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지, 채팅방은 늘 재밌는 이모티콘과 서로를 향한 격려의 메시지로 가득하다.

김승보 팀장은 "올해 글로벌 지식재산 교육부문과 지식재산나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미 세계는 3G 환경이 갖춰지고 있고 학생들은 참여와 공감으로 대표되는 성향의 디지털네이티브로서 ICT환경에 익숙한 것처럼, 다가올 미래에는 이전의 전통적인 교육방식보다는 지금의 시장이 요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교육모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국제사업팀은 발명 학습용 게임의 학교보급을 염두에 두고 G러닝 교육모형을 만들어 가고 있다.

미래는 도전하고 창조하면서 씨앗을 뿌리는 자들의 것이다. 국제사업팀 한 사람 한 사람의 눈과 손을 통해 만들어가는 아이디어가 세계를 숨 쉬게 하는 강력한 파이프라인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블명특어**



21세기는 지식재산이 곧 국가경쟁력이다. 국제사업팀은 국가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글로벌 지식재산 교육과 개도국 나눔사업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과평가 2년 연속 전국 최우수센터 선정 지역 브랜드육성 노력에 박차를 가하다



Interviewee. 안동지식재산센터 박문서 센터장 & 강기훈, 이은지, 권기연 지식컨설턴트

세계 경제가 지식기반 사회로 진입하면서 지식재산을 비롯한 기업이 소유한 무형자산이 오늘날 기업가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창출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거점을 마련하여 지식재산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총 30개의 지역지식재산센터 중 이번호에는 2013년도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성과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센터로 선정된 안동지식재산센터를 소개합니다.

Q 안동지식재산센터(이하 안동센터)에 대한 간단한 소개말씀 부탁드립니다.

박문서 : 안동센터는 경북북부지역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안동상공회의소에 지정받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식재산권 서비스 제공과 특허출원비 지원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죠.

이은지 : 저희 센터는 박문서 센터장님을 비롯해 총 4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강기훈 지식컨설턴트(부장은) 지역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사업을 전담하여 관리하고 있고, 권기연 지식컨설턴트는 IP스타기업 육성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전통산업 IP경쟁력 제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로 업무의 전담과 서브역할을 번갈아가며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센터는 컨설턴트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전문성 제고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모두가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컨설턴트가 5~10년 이상의 경력으로 이제는 눈빛만 봐도 통하는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일하고 있습니다.





Q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안동 지역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권기연 : 안동센터의 관할구역인 경북북부지역은 전통산업이 발달된 지역으로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사업이 활발합니다. 특히 유명 농·특산물이 많은 경북북부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타 지역으로부터 명칭 보호를 위한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사업을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16개 품목에 대해 권리화했고, 올해도 영주, 문경, 봉화군의 5개 품목에 대해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 특히 안동센터는 전통문화 유산인 고택 브랜드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기훈 : 맞습니다. 안동지역은 전국 고택의 약 40%를 차지할

만큼 고택 또는 종택이 많은 지역이죠. 전통문화유산인 고택을 지식재산으로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브랜드화 사업을 전국 최초로 계획하고 추진하여 현재 안동지역 40여 채 고택이 브랜드화되고 상표권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인들에게 고택에 대한 호기심과 신뢰도 증가에 기여하여, 안동지역 고택을 찾는 고택 방문객 수가 지원 전인 2009년도 39,415명에서 2013년 63,489명으로 연평균 1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고택 방문객 중 외국인 방문객 수는 2009년 1,933명에서 2013년 5,107명으로 연평균 27%로 급증하는 등 전통문화유산의 지식재산 글로벌화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지 : 현재 안동시 고택에 대한 160건의 상표등록으로 전통문화유산을 지식재산으로 보호하는 사업에 앞장서 전통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어요, 올해에도 전통문화유산(고택) 브랜드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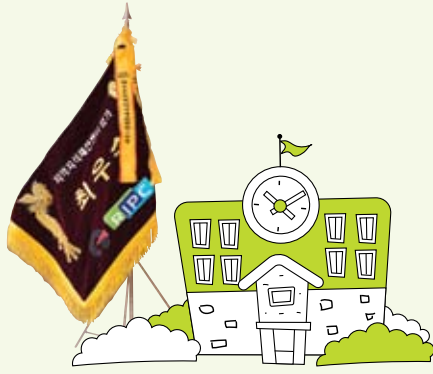


Q 안동시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가 주최하고 안동센터가 주관하는 ‘청소년 지식재산 교육’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이은지 : ‘청소년 지식재산 교육’은 안동지역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발명기법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통해 창의적 사고능력을 배양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발명교육이에요. 경험 많은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창의적 사고전환을 위한 발명특강과 팀별 즉석과제를 통해 팀 기반의 창의적 문제 해결능력, 팀워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4년 연속 운영하고 있죠. 방학을 맞은 중학생들에게 창의적 학습의 기회가 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학부모 및 학생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Q 안동센터는 특허청이 실시한 2013년도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성과 평가에서 2012년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최우수센터로 선정됐는데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박문서 : 저희 센터는 기초센터의 특성을 잘 살려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전통문화유산인 고택의 브랜드화 사업을 통해 전통산업 IP경쟁력 제고사업의 창조적 사업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 사업 등의 지속적인 추진과 실적을 인정받아 기초센터 분야 최우수센터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이밖에도 외부적으로 지속적인 기초지자체 매칭유도를 통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컨설턴트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내부적 노력이 높이 평가되어 2년 연속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동센터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수행과정 및 환류에 이르기까지 한국발명진흥회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속에서 지역의 특색 있는 사업 발굴 및 지역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안동지식재산센터 전화 : 054-859-3093 / 팩스 : 054-859-3092

* 문의 일반사항 : 02-810-8804 / 온라인사업접수 : 02-810-8808

IP-Star 기업 : 02-810-8805



강기훈 : 또한 저희 센터는 안동시 전통문화의 가치보존과 관광 자원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을 인정받아 지난해 지식재산 창조경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2013창조경제박람회'에 홍보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많지 않은 지방 소도시의 단점을 장점으로 극복하여 지역적 특색을 살린 창의적인 사업모델을 꾸준히 개발하고 수행해가는 것이 창조경제시대에 부응하는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Q 안동센터의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박문서 : 안동센터의 관할구역인 경북 북부지역은 중소기업의 규모나 수는 많지 않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지식재산 전담

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지원체계의 손길을 더 필요로 하는 지역이죠. 따라서 저희 센터는 앞으로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창출 지원 강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4년도 경북도청이 올 연말 안동·예천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경북 북부지역 IP-HUB로서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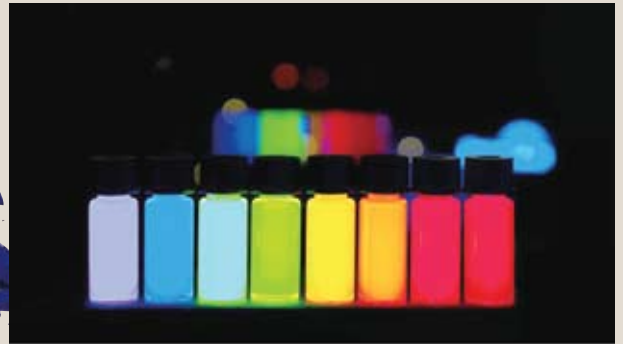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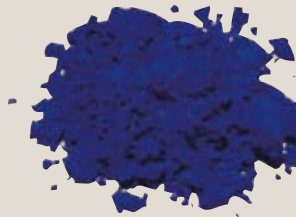
이에 부응하여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인식제고와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명특허**

색을 향한 과학과 예술의 끝없는 향연

미디어아트는 융합 예술이다. 캔버스에 그리던 그림을 기술과 융합을 통해 미디어 디바이스로 옮겨온 것이다. 사실 미디어를 이용하는 아트가 나오기 이전부터 작가들과 기술자들의 협업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모노크롬 아트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이브클라인의 화려한 블루 아트도 화학자와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걸음 더 나아가 작가는 이를 지식재산화함으로 미술에서의 창조적 산물을 오랫동안 자신만의 것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글_ 김성진 Master,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공학박사





아무나 범접할 수 없었던 꿈의 보라색 • 색은 권력이었다. 아무나 함부로 색을 사용할 수 없었다. 로마 시대는 색이 곧 계급을 상징했다. 특히 보라색은 특별한 자들만이 향유할 수 있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장군들이 개선할 때 보라색 망토를 두르던 것에서 유래되어 황제를 상징하게 되었고, 예전부터 귀족, 성직자들이 입었던 옷 색상으로 유명하다.

보라색이 이렇게 고귀한 색으로 사용된 것은 염료의 채취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보라색 염료는 달팽이의 아가미 샘에서 분비되는 맑은 체액을 원료로 만드는데, 로마시대에는 1만 2000마리의 달팽이를 잡아 염료 1.4g을 얻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권력자들이 보라색을 선호했다고 한다.

파란색을 향한 열정적 도전 • 보라색을 넘어 파란색을 향한 인류의 도전은 더욱 열정적이었다. 파란색의 우리 옛 말인 푸른색은 파란색과 초록색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파랑새와 파란장미는 단어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을 가리킨다. 한하운의 '파랑새(1995)' 시를 보면, '파랑새 되어 푸른 하늘 푸른 들 날아다니며'라는 구절이 나온다. 미지에 대한 상징으로 파란색을 사용한 것이다.

파란색에 대한 예술가의 열정이 지식재산의 보호로 연결된 경우도 있다. 프랑스 니스 출신 작가 이브클라인(1928~62)은 화학자와 협업을 통해 찾은 파란색 합성 기술을 지식재산화 했다. 천연광물을 통한 파란색과는 달리 화학 합성을 통해 진정한 파란색을 합성할 수 있게 되었다. 자신만의 파란색을 통해 이브클라인은 단색 미술을 자신의 전유물로 만들 수 있었다. 광물을 이용하는 과거 울트라마린 색과는 달리 합성을 통해 탄생한 화학적 물질은 분자들 간의 조합을 통해 훨씬 더 풍부한 파란색을 가능케 했다.

고대부터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을 나타내던 파란 장미는 최근 꽃말이 바뀌고 있다. 과학자들의 끝없는 도전이 2003년 파란색에 매우 근접한 장미를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파란 색소 효소를

활성하는 블루진(Blue gene)을 장미 유전인자에 넣어주는데 성공했다. 일본의 주류음료 제조업체인 산토리 홀딩스가 지난 2010년 지식재산권을 보강해 상업화 수준의 파란 장미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파란 장미는 미지의 꽃이 아니게 되었다. 다른 색의 장미에 비해 가격도 10배 이상 비싸다고 하니, 아름다움에 대한 과학적 도전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사례라 할 수 있다.

발광하는 디바이스를 찾아서 • 파란색을 향한 인류의 도전은 물감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색을 넘어 빛에서도 파란색을 발산하는 디바이스를 찾게 된 것이다. 텔레비전의 화려한 화질을 도와주는 블루 LED는 인듐(In)을 혼합한 갈륨 나이트라이드(GaN)라는 물질과 양자벽(Quantum)이라는 나노 구조를 통해 전기 신호를 파란 빛으로 바꾼다. 이는 파란색을 향한 인류의 위대한 도전의 또 다른 결과물이다.

더욱 자유롭고 다양한 빛을 낼 수 있도록 양자점(Quantum dot)이라는 새로운 발광 소자 기술에 인류는 도전하고 있다. 기존의 발광 소자는 두세 가지 빛을 내는 정도였지만 양자점 소자는 나노 사이즈의 점을 만듦으로써 크기에 따라 원하는 색상을 마음껏 낼 수 있다. 사이즈가 나노 수준으로 작아짐에 따라 빛을 흡수하는 대역이 조정된다는 양자속박의 원리를 이용한 기술이다. 아마존사는 최근에 판매하기 시작한 고화질 킨دل 제품에 양자점 필름을 포함하여 디스플레이 성능을 고도화하기 시작했다. 인류의 노력이 빛을 다양하게 만드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마무리 • 양자점을 통한 다양한 빛을 만드는 과학 기술은 미디어아트 예술가들을 더욱 흥분시킬 것이다. 빛을 화폭에 담고 싶었던 점묘파 조르주 쇠라(Georges Seurat)의 진정한 이상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세기 이전까지 색으로 다양한 예술 장르를 만들어 왔다면, 이제 새로운 미디어인 디바이스를 통해 화려한 빛의 예술 세계를 펼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이다. **발명특허**



장판 청소하는 로봇, 국내 소비자들을 사로잡다

(주)마미로봇

'로봇청소기는 뭔가 찝찝하다'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이 막 열릴 때쯤, 한국의 주부들이 가졌던 인식이다. 한국 문화에서 '청소'는 먼지를 흡입하는 것으로 시작해 물걸레질로 끝맺는 게 정석이었다. 그런 문화에서 로봇이 스스로 집안 청소를 도맡아 준다는 것은 반가우면서도 미심쩍은 소식이었다. 관건은 '과연 깨끗할까'에 대한 의구심이었다. 때문에 로봇청소기는 2000년대 초반 국내 소비자들에게 수줍게 첫 인사를 시도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지금, 로봇청소기는 재고가 남지 않을 정도로 한국의 가정과 긴밀한 동거를 하고 있다.

01. 02 마미로봇은 세계 최초의 싸이클론 진공흡입청소 방식과 초극세사 특허 물걸레 청소 기능 등 다수의 신기술을 개발, 원천 특허를 확보하여 가정에 보급해 오고 있다. **03** SSW(Spider Spinning Web) 시스템의 청소 모드를 탑재한 '쁘로K7' **04** 마미로봇은 국내뿐 아니라 일본, 유럽, 중국, 홍콩, 대만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03



04

로봇청소기의 미래,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 • 로봇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산업현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가정에서도 로봇의 역할은 점점 강조된다. 로봇과 함께하는 일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이미지가 아니다. 가정과 공존하는 로봇 기기의 가장 친근한 모습은 아마도 청소기일 것이다. 전 세계 로봇청소기 시장이 7천억 원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기술 수준 역시 물라보게 발전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물질만 흡입하는 형태였지만 지금은 물걸레 기능이 추가되고 음이온까지 방출하며 '집 안'에서 사람과 함께 살기에 유익한 가전기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마미로봇은 2005년 창업 이후 지금까지 오직 로봇청소기만을 주 아이템으로 달려온 기업이다.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제품개발과 연구개발을 병행하며 2014년 현재, 국내시장에서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3월, 계속해서 성장하는 마미로봇 본사에 한국발명진흥회 오승택 사업지원 본부장이 방문했다. 지원 이후 기업의 근황을 알아보고 더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오 본부장은 "한국발명진흥회의 지원 이후 마미로봇이 어떤 모습인지 궁금했다"며 "기업 경영을 똑심 있게 해 나갈 것 같은 장승락 대표의 첫 이미지를 아직도 기억한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경영철학으로 지금의 마미로봇을 일군 것 같다"며 첫 만남을 회고했다. 창업 이후 8년동안 해마다 두 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한 마미로봇은 직원 180여 명, 연 매출 250억 원의 기업으로 확대됐다. 장승락 대표는 "로봇청소기의 가능성을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다"며 "지금의 성과들은 여전히 시작점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다.

“한국주부들 정말 깐깐해요” · 해외에만 8개 법인을 돌 만큼 글로벌 마인드를 보여주는 마미로봇. 하지만 이러한 마미로봇의 출발이 낯은 축사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월급을 주지 않아도 되는’ 아내와 ‘적게 줘도 되는’ 처남 등 가족끼리 시작한 마미로봇은 ‘로봇청소기 시장의 앞날은 밝다’는 장승락 대표의 확신 하나로 설립되고 운영됐다.

“창업 당시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은 불모지에 가까웠어요. 이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시장을 새롭게 개척한다고 생각하며 뛰어들었어요. 확신은 가득 찼지만 아나나 다를까 현장에 몸을 부딪치니 생각보다 쉽지 않더군요. 무엇보다 로봇청소기가 외국에서 시작된 아이템이기 때문에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그리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었죠. 우리나라 주부들은 먼지까지 물걸레로 싹싹 닦아야 ‘청소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때문에 한국식으로 탈바꿈한 새로운 로봇청소기를 만들어야 했죠.”

청소기가 다 같은 청소기지 한국문화에 맞는 것이 따로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하지만 엄연히 우리나라에 특화된 로봇청소기는 존재한다. 바로 장판문화에 최적화된 제품이다. 서양과 달리 우리나라는 집안에 장판을 깔고 맨발로 그곳을 돌아다닌다. 때문에 먼지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러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 주부들은 힘을 들여 물걸레질을 한다.

하지만 로봇청소기는 왠지, 대중 청소를 해주는 것 같고 물걸레질도 할 수 없어 늘 찝찝했다. 그러한 인식을 깨기 위해 장승락 대표는 로봇청소기에 물걸레를 장착했다.

“외국과 청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생활환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설계 구조가 바뀌어야 했죠. 아이디어와 특허, 모든 것이 변화해야 하니까요. 외국 제품을 그대로 따라했다면 보다 편한 길로 올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 목표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닌 국내 소비자들에게 특화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니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을 고민하다보니 어느새 내수시장의 35% 이상을 저희 제품이 차지하고 있더군요.”

청소기에 물걸레를 장착한 것도 한국주부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줬지만, 무엇보다 안심시켜준 것은 1회용 필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미세먼지까지 흡입하는 흡입력을 자랑하는 마미로봇의 제품은 필터에 그 비밀이 있었다.

디자인 입은 청소기 “소비자 마음 사로잡을 것” · 한국발명진흥회와 본격적인 만남을 시작한 것은 바로 이때부터다. 2012년, 마미로봇은 디자인에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높은 기술력으로 제품은 만들었지만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지려면 제품의 디자인을 새롭게



05 물걸레 청소에 활성 음이온을 더한 새로운 클리닝 시스템 ‘마미이온’. **06** 마미로봇은 직원들과 경영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07** 마미로봇 제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오승택 본부장(왼쪽)과 장승락 대표(오른쪽). **08** 마미로봇은 물걸레 방식과 진공흡입 방식을 결합한 로봇청소기를 개발한 뒤, 지난 2007년 국제 특허(CT)로 등록했다. 이 외에도 급속충전 특허기술 등을 포함해 총 43건의 국내외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07



08



고민할 필요가 있던 것이다. 어디를 가나 디자인으로 통하는 시대 아닌가. “기업 규모가 커지고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날수록 디자인 문제가 발목을 잡더군요. ‘디자인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대 전자기기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스스로의 힘으로 세련된 디자인을 도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죠.”

기술개발에만 신경을 써도 하루 24시간이 부족했다. 그런 가운데 디자인 작업까지 직접 진행하는 것은 마미로봇에게 큰 부담이었다. 그때 한국발명진흥회의 지원공고를 알게 됐고, 과감히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사실 아주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함께 작업을 할수록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매칭해주는 디자인 회사가 굵직굵직한 좋은 기업들이더군요. 무엇보다 자신의 일처럼 성심성의껏 도와주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디자인 회사와 작업을 하며 장승락 대표가 요구한 것은 딱 두 가지였다. 첫째, 잘 팔리는 디자인일 것과 둘째,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경제적이면서도 시장성이 좋은 디자인을

요구한 것이다. 디자인도 결국은 소비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일환인 만큼 기초적인 것에 충실한 게 핵심이라고 생각했다.

“디자인을 만들어주는 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거의 100개 가까이 되는 시안으로 피드백 작업이 이뤄졌거든요. 사실 디자인이라는 것은 2등을 하는 99명이 1등을 하는 단 한 명을 이길 수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중소기업인 우리가 이를 시행하는 건 무리가 있었죠. 한국발명진흥회의 좋은 도움과 지원을 얻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결과물 역시 시장에서 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장승락 대표는 앞으로 마미로봇이 글로벌 기업으로 전진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이야기했다. 주위에서는 청소기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발을 들여놓을 것을 권유하지만 그는 오직 청소기만으로 시장에서의 승부를 다지고 싶다고 강조했다.

“세계 일류의 로봇청소기 업체가 되고 싶습니다. 그 길도 앞으로 머지 않겠다고 생각해요. 직원들과 함께 동행하며 좋은 결과를 내고 싶어요.” **발명특허**

점음과 패기로 도전하는 21세기 에디슨

금오공과대학교 '거북선신화'

24년이라는 전통을 이어오는 발명 동아리가 있다. 바로 금오공과대학교 '거북선신화' 팀이다. 창립년도부터 꾸준히 국내 발명대회와 창업대회에 참여해 상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국제발명전시회에도 참가해 화려한 수상경력을 자랑한다. 발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 서로의 전공지식을 공유하고, 선배들이 쌓아온 노하우들을 배워가며 꾸준히 기술로 확립시키는 거북선신화. 그들을 이끄는 회장 이진석 씨를 만났다.

세월을 넘고 남은 아이디어 열전! · 1991년부터 시작된 '거북선신화'는 현재 금오공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회원과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로 이루어져 있다.

24년이라는 세월만큼 거북선신화는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얼마 전 '2013 대만 국제 발명전'에서 기존 잠금 기능에 입력 타이밍 인식 기능을 추가하고 비밀번호 누출 위험의 단점을 보완한 발명품 '도어락(Door lock)'으로 동상과 특별상을 수상했다.

"기존의 도어락에서 잔류지문으로 인해 비밀번호가 노출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착안점을 얻어 발명한 것이 '도어락'입니다. 처음에는 패턴방식을 접목시켜 아이디어를 구상 중이었는데 선행기술조사를 해보니 이미 유사한 특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선행기술을 찾아보며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패턴 도어락이 아닌 난이도 조절이 가능하고 LED방식으로 박자를 알려주는 도어락을 떠올렸습니다. 공학도 회원들의 전공지식과 '거북선신화' 활동을 하면서 습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01 거북선신화 팀은 말레이시아 국제발명품전시회에 참가해 3관왕에 등극했다.
02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는 거북선신화 팀 **03** 거북선신화 팀은 발명대회 참가
 뿐만 아니라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발명캠프'도 진행하고 있다.

거북선신화 idea!

*거북선신화 로고



02



03

같이의 '가치' • 거북선신화의 발명품은 한 명의 머릿속에 서 튀어나온 게 아니다. 흩어져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함께 교류하고 충돌하고 융합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거북선신화만의 아이디어 노하우는 여러 명이 머리를 맞대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것입니다. 자유토론을 통해 각자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면 혼자만의 생각보다 훨씬 완성도가 높고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니 창출되는 아이디어 또한 다양하다.

“아이들의 창의력과 공간지각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입체공간 채우기 교육용 완구’는 블록 쌓기 장난감으로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현재 기술이전 및 상용화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돛자리를 접으면 가방처럼 뭉 수 있는 ‘돛자리가방’은 야외 활동 시 다른 가방이 필요 없어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청진기와 산소마스크를 합친 ‘코골이 청진기’는 코를 고는 사람의 코에는 산소마스크를 씌우고 귀에는 청진기를 꼽아 자신의 코고는 소리에 잠을 깨게 만드는 아이템이다. 코드를 알려주는 기타도 있다. 손잡이에 LED를 설치하여 프로그래밍된 노래를 코드에 맞게 LED로 표시해주는 아이템이다.

곳곳에 숨겨진 빛나는 아이디어 • 거북선신화팀은 한국 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대학창의발명대회’를 가장 중점으로 두고 1년간 아이디어 연구와 회의를 진행한다. 특히 재학생과 신입생이 한 팀이 되어 대회에 참가하는데 이 시기에 가장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온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꾸준히 개발을 하고,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어 세계에 자신들의 발명품을 소개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다.

이진석 씨는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은 신입생들뿐만 아니라 발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발명은 어렵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위를 잘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간단한 연필부터 생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발명품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 주위에 있는 물건부터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보세요. 분명 여러분들은 남들이 생각지 못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발명특언**



일과 생활의 사이, 벽을 허무는 공간을 탐사하다



(주)넥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은 하루 평균 9시간 47분을 직장에서 보낸다. 어찌 보면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곳인 사무실. 아무리 창의적인 인재라 할지라도 삭막하고 경직된 공간에서 지내다보면 그 창의성도 메마를 수밖에 없다. 환경은 인간의 능력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최근 이런 문제를 반영해 직원들의 창의력을 독려하기 위한 특별한 사무 공간을 만드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일과 생활을 이분법적으로 구분 짓기보다 함께 즐기는 업무 공간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판교로의 이전을 완료한 게임회사 '넥슨' 또한 직원들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새롭게 창조했다. 제2의 성장을 꿈꾸며, 실용성과 편의성으로 알차게 꾸며진 넥슨 사옥을 지금 찾아가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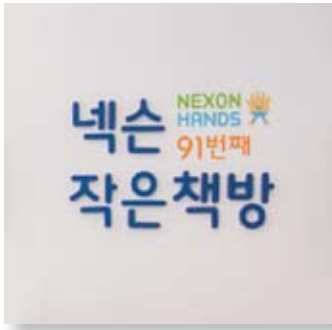
01

01 '게임 개발하기 좋은 회사' 넥슨 사옥 전경 **02** 직원들의 식사공간 'Dinning N'
03 임직원의 미취학 자녀를 위한 사내 어린이집 '도토리소풍' **04** 층과 층 사이를 연결한 휴게공간 'BETWEEN'. 간단한 업무회의와 휴식을 취할 수 있다. **05** 밤샘 근무자를 위한 수면 공간 'Sleeping Room'

workspace korea



02 03 04 05



20살, 꿈을 담아 탄생한 보금자리 • 세계 최초 그래픽 온라인 게임 '바람의나라'를 개발하고 카트라이더와 메이플스토리 등 히트작을 내놓으며 국내 최고의 게임회사 반열에 오른 '넥슨'. 1994년 단칸방에서 살림을 꾸렸던 그들은 스무해가 되던 올해 판교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그 첫 단계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옥에서 직원들이 가장 바라는 공간은 무엇인가?'라는 설문문을 진행했다. 응답자의 과반 수 이상이 '더 넓은 개인 업무 공간'을 희망했으며, '다양한 회의 공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공간' 등을 바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집중, 소통, 재충전'의 키워드가 접목된 최상의 공간이 탄생했다.

게임회사가 주는 이미지는 각종 캐릭터와 화려한 색상이다. 그러나 넥슨의 신사옥은 오래 사용해도 질리지 않는 기업 철학이 담겨 있다. 입구에 들어서면 각종 식물이 진열돼 시선을 끌고, 심플한 로비가 '호텔'을 연상시킨다. 이곳에서는 뉴에이지 음악과 영화 음악이 흘러 나온다.

넓고 탁 트인 1층의 공간은 지역주민과 그 가치를 나눈다. 입구 바로 왼쪽으로 나 있는 작은 책방 '이미지 라이브러리'가 바로 그것. 어린이들에게 독서를 통해 지식을 쌓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고자 시작한 넥슨의 대표적 사회공헌 프로그램 '작은 책방'의 일환이다. 정사각형의 책장은 가운데가 뚫려있어 책을 고르고 바로 앉아 읽을 수 있는 의자가 되기도 한다. 비치된 책들은 기존 도서관들에 비해 아이가 봐도 유익하고 어른이 봐도 즐거운 책들로 가득해 절로 손이 간다. 해외 유명 팝업책(POP-UP BOOK)을 비롯해 유명 게임들의 일러스트집, 게임 비주얼 작업에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디자인 서적과 만화책은 업무에 지친 직원들에게는 휴식을, 호기심이 가득한 아이들에게는 무궁무진한 상상의 세계를 선물한다.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꾸며진 공간 • 개인의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업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개인 공간'이 필요하다.

넥슨의 사무공간은 '집중력'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높은 천정과 넓은 개인 공간은 한층 쾌적함을 더했고, 눈의 피로를 낮추기 위한 LED 조명 시설에서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최고의 게임이 탄생할 수 있도록 최상의 장비들이 구비된 장소는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휘둥그레진다. 우수한 능력을 지닌 개발자들이 오직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술 장비를 지원하고 개발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특히넥슨은 게임음향의수준을 더욱높이기위해 각종효과음등 사운드를 제작하고 녹음할 수 있는 '스튜디오 찰리바'를 만들었다. 녹음은 물론 사운드 레코딩, 성우더빙 등 다양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칸막이 없는 열린 소통의 장 • 회사의 핵심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휴식공간은 필수 불가결하다. 넥슨 곳곳에 위치한 다양한 휴게공간은 업무에 지친 직원들의 휴식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층과 층을 연결하는 계단 사이에 넓게 자리한 테이블이 눈에 띈다. 간간히 웃음 소리가 들리는 'BETWEEN'은 건물의 허브 역할을 하며 직원 간의 자연스러운 소통의 장이 되는 장소이다. 오며가며 생각하고 쉬어갈 수 있어, 삼삼오오 직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띈다.

열린 소통의 장소는 옥상으로까지 이어진다. 때로는 회사라는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법. 그럴 때마다 직원들은 바깥공기를 마시며 몸과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옥상정원 '3RE-SPACE'로 가면 된다.

nexo korea

이곳은 이름이 주는 의미처럼 '새롭게 하고(Re-fresh), 재충전해(Re-charge), 기운을 새롭게(Re-create) 하는 곳'이다. 탁 트인 맑고 청량한 하늘 아래서 때로는 홀로 조깅을, 때로는 팀을 이뤄 농구와 배드민턴으로 체력을 단련하는 직원들은 그야말로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가고 있다.

함께 상생하는 공간 • 단순히 직원들의 업무 편의만을 도모하지 않고 가족의 행복까지 고려한 공간이 마련된 것도 넥스 사옥만의 특징이다. 특히 자녀를 둔 직원을 위한 어린이집 '도토리소풍'은 그 만족도가 높다.

아이들의 키에 맞추어진 낮은 가구들과 창의력을 한껏 발산해 조립할 수 있는 블록들 그리고 햇살을 따뜻하게 비춰주는 곳곳의 창문까지,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들과 아이를 맡기고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직원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간이다.

또한 자녀를 둔 여직원을 배려한 공간도 눈에 띈다. 바로 수유 공간 'MoMs Room'이다. 넓게 트인 창문과 폭신한 의자는 안락함과 동시에 노곤함을 달래주고, 모유수유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구비해 둔 각종 물품들은 바쁜 엄마들을 대변한다.

넥스의 판교사옥은 단순히 '일을 하는 곳'을 넘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량을 펼치는 공간이다. 전통적인 사무실의 개념을 허물고 새로운 소통의 공간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온전히 최고의 계임을 만들기 위해 준비된 공간. 넥스가 펼쳐나갈 내일이 기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발명특허**



06

07



08

06 상쾌한 바깥공기를 마시며 몸과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옥상정원. 07 감각적으로 디자인된 소파와 테이블이 '호텔'을 연상시킨다. 08 직원들의 체력을 담당하는 사내 체력단련실 'Level up'



49

지식창출과 기술혁신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
각 나라별 지식재산기구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소개합니다

자료제공_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독일 IPcom, 특허침해를 이유로 Apple에 손해배상 청구

www.appgamers.de



지난 2월 7일, 독일의 IPcom*은 Apple을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럽 특허청(EPO)은 지난 1월 Apple, Nokia, HTC 등이 제기한 IPcom의 긴급통화특허 무효화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독일의 비실시기업인 IPcom은 Apple을 상대로 약 15억 7천만 유로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IPcom은 이동통신망에서 긴급전화를 우선적으로 네트워크에 접근 시키는 기술인 긴급통화특허(유럽특허번호 EP1841268)**를 Apple 이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IPcom은 동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Apple 이외의 긴급통화특허를 사용한 다른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 IPcom은 2007년 설립된 이동통신 부분에서 약 1200건의 특허를 보유한 비실시기업이며, 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특허를 사들여 로열티 수입을 챙기거나 소송을 제기해 이익을 창출함.

** IPcom은 Bosch-Konzern로부터 긴급통화특허를 취득함.

미국 백악관,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신규 행정명령 발동(發動) 추진

www.whitehouse.gov



지난 2월 20일, 미국 백악관은 특허괴물을 척결하고 미국의 특허제도 강화 및 혁신을 증진하기 위하여 3개의 신규 행정명령 발동을 추진했다. 지난 2013년에 발표된 행정명령*의 진행상황을 공개하는 한편, 의회에 특허괴물 척결을 위한 특허 개혁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백악관은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노력 보완과 모든 혁신기들을 위한 공평한 경쟁 환경 조성 및 특허 품질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3개의 행정명령을 언급했다.

· 선행기술 클라우드 소싱**

특허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행 기술 검색 시 클라우드 소싱 등을 포함하여 전문가 및 일반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 기술 교육 강화

특허 심사관들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기술 분야를 이해할 수 있도록 USPTO는 특허 심사관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공학자 등의 전문가들이 심사관들에게 기술적 훈련 및 지침을 제공할 수 있게 함.

· 법률 지원

자원이 부족하여 특허출원 및 관련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발명가 및 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USPTO를 통해 법적 도움이 필요한 발명가들을 지원하고,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 담당자를 지정함.

* 동 행정명령은 미국 백악관이 지난 2013년 6월 4일 발표한 「의회 입법권고 및 행정명령 (FACT SHEET: White House Task Force on High-Tech Patent Issues)」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투명성 증진, ② 특허 명확성 증진, ③ 소송내용으로부터 소기업 및 개인 보호, ④ 홍보 확대 및 집중 연구, ⑤ 수입 배제 명령의 집행 절차 강화, 총 5개의 행정명령.

** 크라우드 소싱(crowdsourcing)이란 대중(crowd)과 외부자원활용(outsourcing)의 합성어로, 기업의 제품·서비스 개발과정에 외부 전문가 혹은 일반 대중을 참여시킨 후 혁신적인 성과를 달성하면 그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을 의미함.

중국 국가지식산업권국, 특허 대리 서비스 수준 향상 방안 발표

www.iprchn.com



지난 2월 28일, 중국 국가지식산업권국(이하 'SIPO')은 특허 대리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허 대리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몇 가지 의견」*을 발표했다.

SIPO는 최근 중국의 특허 대리 산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서비스 능력이 향상하여 중국 특허 사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아직까지 특허 대리 서비스 인력이 부족하고, 지역적 불균형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번 의견을 통해 특허 대리 서비스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특허 대리 산업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특허 대리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몇 가지 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학원생의 특허대리산업 진출 유도

「특허 대리인 자격 시험」 응시 조건**을 완화하여 이공계 전공 대학원생들이 특허 대리인 자격을 재학 중에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즉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함

· 우수 인력의 광범위한 유치

특허 사무소는 특허 대리인 자격 및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뿐만 아니라, 연구소 기타 특허 관련 업무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들의 특허 업무 경력을 인정하여 우수 인력을 광범위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사무소 확대

특허 대리 서비스의 수요가 있으나 전문 인력이 없는 지역에 특허 사무소 지사를 설치하도록 하여, 우수 인력 자원을 지방으로 확산시키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킴

* 「특허 대리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몇 가지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sipo.gov.cn/tz/gz/201403/t20140307_913587.html.

**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중국 특허 대리인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학업 기간 2년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번 특허 대리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학원생들의 학업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조정함.

GLOBAL REPORT

중국 국가지식산업권, 지식재산권 인력 육성을 위한 2014년 계획 발표

www.sipo.gov.cn



CHINA

지난 1월 29일, 중국 국가지식산업권(이하 'SIPO')은 「2014년 전국 지식재산권 인재 업무 요점」을 발표하여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을 실시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전문 인력의 사업 지원을 강조했다. 「2014년 전국 지식재산권 인재 업무 요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문 인력 육성

고급기술 인력에 대한 실무연수를 실시하고, 온라인 교육 시스템의 개발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

· 지식재산 인력 육성 체계 정비

행정 단위 별 지식재산권 인재 사업을 실시하고, 연합 회의제도를 구축함. 또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고차원 지식재산권 인력 육성 사업을 시행하고, 지역 지식산업권의 국장 이상 인력의 고급 연구교육을 실시함

· 인재 육성 사업 기반 조성

지식재산권 인력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지식재산권 인재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또한 각 성급 지식산업권은 지식재산권 인력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른 지역과 공유함

한편, SIPO는 지식재산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중장기 지식재산권 인재 발전 계획*들을 실천하고, 지식재산권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중국의 혁신 발전에 기여할 것을 강조했다.

* 「국가 중장기 인재 발전 계획 요강(2010~2020)», 「지식재산권 인재 12차 5개년 계획(2011~2015)」 및 「지식재산권 인재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기 위한 의견」 등.

일본 마이스, Nissan의 개방특허를 활용하여 제품 개발

news.kanaloco.jp



JAPAN

지난 2월 18일, 일본 가와사키에 소재하여 자동 조립기나 검사 장치를 개발·제조하는 마이스는 Nissan의 개방특허*를 활용하여 공장에서 필요한 만큼 작업자에게 자동으로 볼트를 공급하는 「부품 정수 공급 장치」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마이스는 지난 2007년부터 가와사키시 산업진흥재단이 대기업**의 개방특허를 활용해 중소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식재산 교류회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이번 부품 정수 공급 장치의 제품화도 지식재산 교류회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언급했다.

마이스는 오는 4월부터 자동차 회사, 건축 및 기계, 농업 기계 등 대형 공업제품 제조회사를 중심으로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며, 가격은 약 28만 엔으로 책정하여 연간 200대 판매를 목표로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하여 Nissan의 이와타 코이치 부장은 해당 기술이 상품화 되면 제품의 신뢰도나 성능이 향상되고, 기술을 제공한 기업은 라이선스 수익 발생으로 인한 사업의 이익이 크다고 밝히며 기술을 제공한 입장에서의 장점을 언급했다.

* 개방특허란 특허권자 또는 특허 출원인이 라이선스 계약, 양도 등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개방할 의사가 있는 특허를 의미하며, 일본의 경우 개방특허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방특허정보DB'를 운영하고 있음. '개방특허정보DB'는 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업이 등록된 개방특허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해당 특허를 소유하고 있는 등록자와의 계약 체결을 통해 개방특허를 활용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본의 '개방특허정보DB'와 유사한 지식재산거래정보센터(IP-Market)를 운영하고 있음.

** 일본의 자동차 회사인 Nissan는 차량 생산라인에서 필요한 만큼 자동적으로 볼트와 너트를 공급하기 위해 자석을 넣은 회전판에 볼트를 흡착시켜 자동으로 개수를 세고 이를 작업자에게 전달하는 기술을 개발한 바 있음.

일본 정부, 기업의 영업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신규 법안 제정 추진

www.nikkei.com



지난 2월 16일, 일본 정부는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는 신규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업의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가 미흡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법안 마련 필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 관련 신규 법안의 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 기업의 영업 비밀이 해외로 유출된 경우에 벌금이나 징역 수준을 강화

현행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업에 대한 벌금이 최고 3억 엔에 해당하는데, 이는 미국의 1/3 수준임. 또한 영업 비밀을 유출한 개인에 대한 벌금도 최고 1천만 엔으로, 상한이 없는 미국이나 영국에 비하면 억제력이 작용하기 어려움. 일본 정부는 해외로 기업의 영업 비밀이 유출된 경우에 벌금이나 징역 수준을 강화하도록 함

· 피해 기업의 영업 비밀 누설이나 도용에 대한 입증 용이성 향상

영업 비밀을 도용당한 기업이 피해 회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해 기업이 무죄를 주장할 경우에는 법원에 증거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추진함

이와 관련하여 경제산업성은 4월부터 산업계와 민·관 포럼을 개최하여 정보 누설이나 대책에 대한 사례를 집약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민·관이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6월에 개정하는 일본 정부의 성장 전략에 이를 포함시키고, 2015년 정기 국회에 신규 법안 제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 기업의 영업비밀이란 기업이 타사와 차별화를 도모하여 이를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한 비밀임. 독자 개발한 기술이나 고객 정보, 마케팅 성과도 포함되며 이를 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으로 신청해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지식재산권으로 취득할 경우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규제가 느슨한 신흥국의 모방을 우려하여 기업은 이를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전략을 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영국 지식재산청, 저작권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Music Inc.」 출시 발표

www.ipo.gov.uk



지난 2월 5일, 영국 지식재산청(이하 'IPO')은 게임을 통해 음악 산업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저작권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Music Inc.」을 신규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현대 음악업계에 관한 식견을 넓히고 디지털 시대의 예술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교육하기 위해서다.

IPO는 Aardman Animations, 영국 음악업계 관계자 등과 협력하여 동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으며, 동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수를 선정하여 커리어를 쌓는 과정을 지원함
- 가수의 이미지와 스타일링이 인기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가수의 이미지를 설정함
- 작곡가, 프로듀서 및 음반 기술자 명단 등을 통해 음반을 작업함
- 라디오 방송, 스트리밍, 무단 사용 및 저작권 침해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여 결산함

IPO 청장 Lord Younger는 영국이 전 세계적으로 수준 높은 음악가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의 작품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영국 음악 산업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Music Inc.」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저작권이 창조적인 산업에서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 IPO는 동 어플리케이션이 영국 정부가 음악업계와 협력하여 청소년들에게 음악업계의 현황 및 창작자들이 작품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과정을 교육하기 위한 게임을 개발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힘.

IP NEWS

우수 지식재산(IP) 보유기업, 금융권에 연결해 준다 '창조기업 IP금융연계 지원 사업' 3월 첫 시행

특허청은 3월부터 지식재산권 보유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보유 특허의 수준을 무료로 진단하여 기술평가서를 발급해주는 '창조기업 IP 금융 연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해당 기업은 등록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 또는 투자기관으로의 추천을 희망하는 기업이다.

신청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술평가는 한국발명진흥회 변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팀이 실시하고, 기술평가서에는 기업 현황과 보유특허의 기술성, 권리성 등에 관한 검토의견(우수, 양호, 보통 3단계)이 담기게 된다. 특허청은 격월로 30~50개 기업에 대해 보유 지식재산권에 관한 기술평가서를 발급해줄 계획이다.

지난해 3월 KDB산업은행의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신용보증기금이 8월부터 '지식재산 가치평가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IBK 기업은행도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올 4월부터 시행하는 등 지식자산을 활용한 금융상품이 계속 출시되고 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도 지난해부터 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한 IP 금융상품을 출시했고, 올해는 여타 은행권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특허청의 '창조기업 IP금융연계 지원사업'이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IP금융에 뛰어들고 있는 금융권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14년 창조기업 IP금융연계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내용은 한국 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에 볼 수 있으며, 문의는 한국 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02-3459-2944, 2936)으로 하면 된다.

지식재산 표준교육을 전국 대학에 확산 표준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보급

특허청은 창조경제 시대에 지식재산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시됨에 따라 대학의 창의적인 인재 육성과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지식재산 표준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지식재산 표준교육과정은 기존의 단편적이고 단발적인 내용의 지식재산 교육 형태를 벗어나 수준·단계·분야로 구분한 9개 교육과정(교과목)과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58개 교육모듈로 구성했다.

교육모듈에는 교육목표, 교육내용과 방법, 평가방법, 교재 및 고유번호 부여 등을 상세하게 제공함으로써 대학 전 계열에서 전공과목뿐만 아니라 교양과목과 연계하여 손쉽게 필요한 지식재산 교육내용을 선택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그리고 비이공계인 상경계, 예술계의 경우 지식재산 개요와 특허 등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교육하고, 지식재산 과목이 설치되지 않은 학과를 위해 기초과정으로 '지식재산 입문'(16주)을 개발하여 각 계열에 맞게 지식재산 교육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한편, 각 교육모듈에 대한 표준교육교재는 기존에 발간된 '지식재산의 이해' 등 8종의 교재를 기본으로 PDF·PPT 파일로 금년 상반기 중에 개발하여 전국 대학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직원 교육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정보 사이트(<http://www.iphuman.or.kr>)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앞으로 지식재산 기반의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에서의 지식재산 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 교육 여건을 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상회의 어디까지 진화할까?

특허청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및 행정 효율성제고를 위해 '특허청 영상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준사법업무인특허심판 구술 심리와 고난도 전문업무인 선행기술조사에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특허분쟁의 신속·정확한 해결을 위한 핵심 절차인 특허심판 구술심리 진행을 위해서 서울 등에 있는 심판 당사자들(대리인 포함)이 대전에 있는 특허심판원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고화질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원격 화상 구술심리가 가능해져 특허심판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허청은 특허심사 품질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기술조사에도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선행기술조사는 특허권 부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존에 유사기술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써, 기존의 선행기술조사는 특허심사 용역기관의 조사원이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특허심사관에게 단순히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특허권을 부여하는 심사관과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조사원과의 적시성 있는 소통에 한계가 존재했으며, 심사관이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적으로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행정비효율을 초래했다.

이에 특허청은 영상회의를 활용한 디지털 소통 인프라를 통해 조사원이 특허심사관과 상시 소통·협력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특허심사에 최적화된 선행기술조사 결과가 도출되어 고품질 특허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러시아와 지식재산권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전통지식 DB 제공 등에 합의**

특허청은 지난 2월 27일 대전에서 러시아 특허청과 청장회담을 개최하고 지식재산권분야의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러시아의 개혁·개방이후 90년 초에 처음 시작되었던 가장 큰 진전이 없었던 양국 간 지식재산권 분야 상호협력을 새롭게 확대 발전시키고, 작년 11월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 있는 양국 간 첨단기술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뒷받침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금번 양해각서는 공동선행기술조사와 같은 기존의 협력분야뿐만 아니라 최근 양국에서 적극 관심을 보이고 있는 PPH(특허심사하이웨이), 특허정보 교환, 전통지식 DB 제공 및 지식재산권 교육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PCT-PPH 협력으로 양국 간 산업재산권 출원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 산업재산권 데이터 교환을 통해 양국의 심사효율을 높이고 러시아 특허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출원인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통지식 DB 제공을 통해 러시아 특허청 심사관들이 약 31만 건의 우리 전통지식이 담긴 DB를 심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우리 전통지식의 국제적 보호 기반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2012년 WTO 가입 이후에는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을 설립하고 특허출원도 조금씩 증가하는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늘려가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와의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간의 우의와 신뢰를 다지고 지식재산권 협력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 상표정보, 유럽 넘어 세계로
유럽상표검색서비스(TMView), 한국 상표정보 서비스 개시

앞으로 우리나라 상표의 국제적 인지도가 크게 향상되어 상표활용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최근 세계 최대 상표검색서비스인 TMView(www.tmview.eu)에서 한국 상표정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허청이 유럽상표디자인청과 작년 9월 상표정보 교환을 위한 MOU 체결 이후 추진된 것으로, 이를 통해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로 TMView에 우리 상표정보를 서비스하게 됐다.

TMView는 유럽상표디자인청(OHIM)이 제공하는 글로벌 상표검색 서비스로 유럽연합 가입국을 비롯하여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미국특허상표청(USPTO) 등 전 세계 35개 국가·기관의 상표정보 2,364만 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TMView에서는 한국어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 누구든 해외 상표를 한국어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은 해외 상표 관리 및 전략 수립에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외 기업으로서는 TMView를 통해 한국 상표정보에 대한 접근이 수월해져 국내 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TMView와는 별도로 유럽상표디자인청의 상표정보를 국내 지식재산권 정보제공 채널인 특허정보넷 KIPRIS(www.kipris.or.kr)를 통해 민간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지식재산 기반의 글로벌 히든 챔피언 육성을 위한
월드클래스 IP 센터 개소

특허청과 중소기업청은 글로벌 경쟁 시대의 핵심 자산으로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난 2월 28일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내 '월드클래스 IP 센터'를 개소하고 기술혁신형 IP 통합솔루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월드클래스 IP 센터는 산·학·연 협력과 더불어 특허 분쟁 방안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식재산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지난 10월부터 약 3개월간 중기청이 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 의뢰해 실시한 '유망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활동 실태 조사'에 따르면 유망 중소·중견기업 중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은 7.9%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지식재산 전문 인력이 부족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지식재산 출원, 등록, 유지'가 지식재산 담당자 업무의 대부분(78.5%)을 차지하고 있어 보유 지식재산의 활용이나 전략 수립 활동은 거의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기업들의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과 요구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청은 특허청과 협력하여 지식재산이 기업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형 IP통합솔루션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게 됐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 IP 분쟁 대응력 강화와 미래 신사업 발굴을 위하여 지식재산 관점에서 통합 지원하며, 기업의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R&D·인프라·활용 전반에 걸쳐 기업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선택적 맞춤형 IP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본 사업의 접수는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홈페이지(www.kipsi.re.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IP)으로 무장한 강소기업 육성 추진
특허청, 2014년 민간 IP-R&D 전략지원 사업에 120억 원 투입**

특허청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창조경제의 선도자로서 강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여 글로벌 시장을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일명 'IP-R&D 전략') 수립을 적극 지원한다.

2013년에 112억 원을 투입하여 총 158개 과제를 지원한데 이어, 2014년에는 지원규모를 확대, 120억 원을 투입하여 총 174개 과제(중소기업 132, 중견기업 42)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상반기 참여기업에 대한 선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사업 공고(5월경)를 통해 참여기업을 선정하여 5개월 간 과제별 특허전문위원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기업의 연구개발 과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특허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강한 특허 창출, 효율성이 높은 R&D 방향 제시 등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중심의 종합적인 전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단발성 지원을 지양하기 위해 기업이 원하면 과제 종료 이후에도 현장 방문을 통해 특허출원 및 전략이행 관련 문제점을 분석하여 약식 대안을 제시해 주는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한, 중소기업 중에서도 열악한 재무상황을 가지고 있는 소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부담 비용을 완화하기로 했다.



**도로파손 주범 포트홀(Pot Hole),
특허기술로 해결**

이상기후에 따른 도로의 파손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폭설 뒤 또는 장마철에 그 피해가 두드러지는 포트홀(Pot Hole)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포트홀 때문에 발생한 사고는 지난 5년 새 무려 5배나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설경기 침체로 도로분야의 전체 출원이 감소한 가운데서도 포트홀과 같은 도로 파손을 방지하는 특허출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로 파손 방지와 관련된 특허 출원은 도로분야 전체 출원건수 대비 약 27%(연평균 160여 건)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 도로분야 출원건수가 2009년 대비 약 43%가 급감한 상황에서 도로 파손 방지 출원 비중은 약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기술로는 SK이노베이션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슈퍼팔트'가 있다. 기존 포장재료에 고무계열의 첨가제를 혼합하여 아스팔트 성능을 개선한 이 기술은 도로포장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최근 중국에서도 무려 23억 위안(한화로 약 4,000억 원, 2011년 기준)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기후 변화에 따른 도로 파손은 전 세계 공통의 문제이고, 최근 건설업계에서도 경기 침체의 대안으로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분야 특허에 대한 적극적인 해외 출원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IPA NEWS

제26회 정기이사회 및 제19회 회원총회 개최

우리회는 지난 2월 25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회의실에서 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장 등 총 14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6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김광림 회장의 개회 선언 후 의장인사, 감사보고, 2013년 사업실적 및 결산안,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원사 대표 등 총 102명(위임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회원총회가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오승택 사업지원본부장은 개회 선언 후, 그동안 우리회 운영 및 발명진흥사업에 기여해온 공로자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신규 회원에게 회원증을 전달했다.

오 본부장은 “한국발명진흥회는 앞으로 중소기업 및 개인 등이 소유한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식재산 강소기업 육성과 지역의 지식재산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특허기술거래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 지식재산 강국을 위한 발명문화 확산에 매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3년 사업실적 및 결산,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보고가 이뤄졌다.

우리회, 대학(원) 지식재산 전문강사 워크숍 개최

우리회는 지난 2월 24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대학(원) 지식재산 전문강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표준교육과정, 교재 등 다양한 지식재산 교육 콘텐츠 정보를 공유하고 교수법 강의 및 교육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지식재산 교육의 상향 표준화를 도모하고자 대학(원) 지식재산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임수희 대표(해피로드 컨설팅)의 ‘학습자 몰입 제고를 위한 참여교수법’, 엄정한 변리사(BLT 특허법률사무소)와 차현태 변리사(특허법인 리앤목)의 ‘지식재산 교육 우수사례 발표’가 있었다.

백인홍 지식재산인력양성팀장은 인사말을 통해 “산업계의 지식재산 인력수요가 점점 더 증대되는 가운데,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식재산 교육의 질이 한 단계 향상되어 지식재산에 강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선진 중소기업 IPR 정책사업 배우러 왔어요”
덴마크, 러시아, 홍콩 특허청 임원진, 한국발명진흥회 방문

덴마크, 러시아, 홍콩 등 지식재산 업무를 총괄하는 특허청장 및 실무진의 한국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2, 3월 우리회를 방문한 해외 방문단은 2월 18일 덴마크 특허청 행정 법무팀장(Camilla Hjermin, 카밀라 예르마인드), 2월 26일 러시아 특허청장(Boris Simonov, 보리스 시모노프), 홍콩 지식재산서 사장(Zhang JinHui, 장금휘) 등 각국 특허청의 핵심인사로 구성됐다.

우리회는 각국 방문단을 위해 별도의 우리회 사업소개 시간을 마련하는 한편, 기술평가거래, 사업화 지원 등 분야별로 과장급, 전문위원 다수가 참여해 방문단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해외 방문단들은 공통적으로 우리회의 특허가치평가 및 기술 거래에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쏟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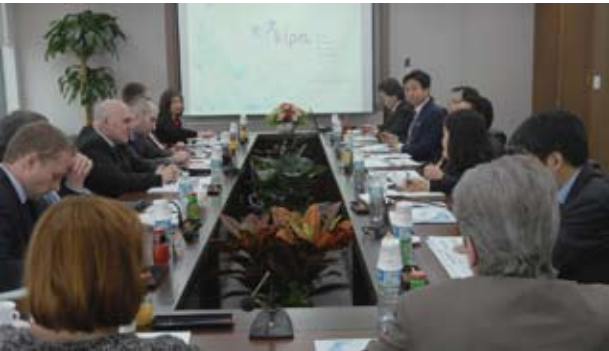
러시아 특허청장 보리스 시모노프는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사전 가치평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술의 가치평가를 하는 방법도 어렵지만, 실제로 가치평가의 높은 점수가 사업화의 성공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한국발명진흥회의 ‘SMART’시스템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시스템인 것 같다. 향후 다양한 국가버전으로 서비스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은영 부회장은 “우리의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각국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IPR 정책사업이 함께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성심껏 협력할 것”이며, “우리 회를 방문한 3개 국가와 더불어 더 많은 나라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덴마크 방문단(2/18)



● 러시아 방문단(2/26)



● 홍콩 방문단(3/5)



▲ 각국의 특허청 공무원들이 우리회 간부회의실에서 ‘우리회의 사업과 비전’에 대한 발표를 듣고 상호기관의 업무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KIPA 인사동정

직제개정에 따른 보직 재발령, 전보

송재우 계장	경영기획본부 기획팀 (2014. 1. 15)
신수광 주임	경영기획본부 기획팀 (2014. 1. 15)
권용준 주임	경영기획본부 기획팀 (2014. 1. 15)
손재희 사원	경영기획본부 기획팀 (2014. 1. 15)
홍성일 부장	경영기획본부 지역지식재산팀장 (2014. 1. 15)
윤종철 과장	경영기획본부 지역지식재산팀 (2014. 1. 15)
김종철 계장	경영기획본부 지역지식재산팀 (2014. 1. 15)
이은희 계장	경영기획본부 지역지식재산팀 (2014. 1. 15)
백종현 계장	경영기획본부 지역지식재산팀 (2014. 1. 15)
지병석 계장	경영기획본부 지역지식재산팀 (2014. 1. 15)
황혜진 계장	경영기획본부 지역지식재산팀 (2014. 1. 15)
박경환 계장	경영기획본부 지역지식재산팀 (2014. 1. 15)
임달문 계장	경영기획본부 지역지식재산팀 (2014. 1. 15)
장인준 주임	경영기획본부 지역지식재산팀 (2014. 1. 15)
현우열 주임	경영기획본부 지역지식재산팀 (2014. 1. 15)
김종택 선임연구원	경영기획본부 지역지식재산팀 (2014. 1. 15)
김승보 과장	사업지원본부 국제사업팀장 (2014. 1. 15)
배재욱 과장대리	사업지원본부 국제사업팀 (2014. 1. 15)
유주현 계장	사업지원본부 국제사업팀 (2014. 1. 15)
임지나 주임	사업지원본부 국제사업팀 (2014. 1. 15)
박희승 주임	사업지원본부 국제사업팀 (2014. 1. 15)
곽유미 전문위원	사업지원본부 국제사업팀 (2014. 1. 15)
최용준 주임연구원	인재개발연구본부 교육기획팀 (2014. 1. 15)

신규임용

김범규	주임(6급)에 임함. 사업지원본부 지식재산진흥팀 (2014. 2. 1) (수습기간 : 2014. 2. 1~2014. 4. 30)
권준영	주임(6급)에 임함. 인재개발연구본부 교육기획팀 (2014. 2. 1) (수습기간 : 2014. 2. 1~2014. 4. 30)
강다혜	주임(6급)에 임함. 인재개발연구본부 교육기획팀 (2014. 2. 1) (수습기간 : 2014. 2. 1~2014. 4. 30)
손다운	주임(6급)에 임함. 경영기획본부 지역지식재산팀 (2014. 2. 1) (수습기간 : 2014. 2. 1~2014. 4. 30)

전보

허동욱 차장	경영기획본부 지역지식재산팀 (2014. 2. 16)
윤종철 과장	사업지원본부 지식재산진흥팀 (2014. 2. 16)
민선홍 계장	인재개발연구본부 교육기획팀 (2014. 3. 23)
윤용일 계장	경영기획본부 총무팀 (2014. 3. 23)
이보람 계장	사업지원본부 사업화지원팀 (2014. 3. 23)
박경호 주임	경영기획본부 기획팀 (2014. 3. 23)

복직

이민우 과장	인재개발연구본부 발명영재교육연구원 (2014. 3. 27)
연효진 계장	사업지원본부 지식재산진흥팀 (2014. 2. 20)

KIPA QUIZ

Readers Comments



● 2014년 3+4월호 퀴즈

Q. 스마트폰을 예로 들면 안테나, 모뎀, 카메라 등 여러 부품에 대한 복수의 특허·실용신안 출원들을 신제품 출시에 맞춰 한꺼번에 심사를 진행, 기업들이 제때 신제품에 대한 강력한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갖출 수 있게 도와주는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Q. 스마트폰에 저장한 사진을 손가락으로 넘길 때 맨 마지막 사진에 도달하면 화면이 더 이상 넘어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용수철처럼 튕겨 들어가는 이 기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2014년 1+2월호 퀴즈 정답

01. 특허박스(Patent Box)

02. 로보비(Robobee)

● 2014년 1+2월호 퀴즈 당첨자

홍건영 ghdrjsd****@gmail.com (서울특별시 송파구)

박민정 zzoggowo****@hanmail.net (광주광역시 서구)

임경희 kh20****@korea.kr (대전광역시 대덕구)

● 유광열 독자 (대전광역시 중구)

〈한 사람의 우수한 인재가 국가의 미래를 바꾼다〉는 발명영재교육원의 설립이념 및 조직원들의 각오 잘 보았습니다.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한다는 창조경제, 그 창조경제의 대업을 이룰 인적 인프라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주역이 될 아이들이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발명인재가 될 수 있도록 과학에 대한 열정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글로벌 과학 기술 인재 양성의 꿈, 발명영재교육원에서 순조로운 스타트를 끊어 주시기를 기대해봅니다.

● 이준임 독자 (경기도 포천시)

특집 칼럼 〈디테일을 보는 눈〉을 읽고 관찰이 창조에 기여하는 중요한 힘의 원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평범함 속에 숨겨져 있는 가치를 세밀하고 꼼꼼한 관찰로 발견하여 패러다임을 바꾸는 위대한 혁신을 만들어내는 여러 사례들을 통해 창조의 DNA는 디테일한 관찰의 고리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혁신과 창조는 기존의 것과 완전히 동떨어진 '별에서 온 그대'가 아닌 우리 곁에 항상 있었던 것들을 재발견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신 좋은 기사였습니다.



지식재산 전문정보지 [발명특허]를 읽고 퀴즈의 정답과 독자의견을 smp@kipa.org로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일 5월 16일)

원고 모집 안내

한국발명진흥회가 발간하는 「발명특허」는 발명진흥사업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동향 및 정보를 다루는 전문정보지로 본회 회원사 및 국내외 유관기관, 기업, 도서관, 학교, 발명가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원고 투고를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원고 모집 안내

「발명특허」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야별 전문 의견과 정책·출원 동향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널리 확산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간되는 지식재산 전문정보지입니다.

콘텐츠 중 [IP Focus]에서는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정보를 선도하고 정책·기술 전문지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투고를 받고자 합니다. 단, 길고 딱딱한 글이 아닌 신문의 칼럼 형식으로 누구나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는 원고를 부탁드립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모집 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칼럼
- 원고 주제: 관련 분야별로 자유롭게 선택
- 원고 분량: 원고지 22매~24매(A4용지 10Point, 3매 이내)
- 모집 시기: 상시 모집
- 보내실 곳(E-mail) : smp@kipa.org

● 한국발명진흥회 지회·지부 안내

지회·지부	지회장·지부장	사무국장	주소	연락처
부산지회	박성용	김유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607(가야동) 새마을회관 6층	051-645-9683
광주지회	고정주	김 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8번로 177, 경제고용진흥원 2층	062-954-3841
강원지회	김윤호	김현웅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보듬관 403호	033-264-6580
전북지부	-	정승원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69(오식도동) 2층 9호	063-471-1284

2014 직무발명보상제도 무료 컨설팅 신청안내



컨설팅 개요	
대상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기업 또는 도입하였으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
목적	기업에 전문가를 직접 파견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규정 수립에 대한 도움 제공 및 제도 운영의 애로사항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강사	변리사, 교수 등 직무발명보상제도 전문가
비용	무료 (비용 전액 지원)
일시·장소	기업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교재	자료 제공
시간	2~3시간

컨설팅 지원범위 및 절차	
지원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발명보상제도 규정 수립 · 기업 내 직무발명보상제도 위원회 구성 (회의 진행) · 직무발명보상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 보상금 결정 ·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및 운영상의 문제점 해결방안 제시 · 직무발명보상제도 보상 분쟁 관련 대응방안 제시 · 직무발명보상제도 교육 등
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업이 원하는 일시·장소를 정하고, 원하는 컨설팅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신청서를 접수 ② IP경영 의지가 강한 기업을 우선하여 개최 기업 선정 및 일정 확정 ③ 개최 기업 산업분야에 적합한 전문가를 섭외 ④ 선정된 전문가에 기업이 원하는 컨설팅 내용을 전달 ⑤ 전문가는 컨설팅 및 자료 준비 ⑥ 컨설팅 개최 ⑦ 결과보고서 작성 및 사후관리

컨설팅 신청	
신청기간	2014. 3. 17(월) ~ 4. 22(화) [컨설팅 개최가능일 : 2014. 5월 이후~ 11월 말]
신청방법	컨설팅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2845@kipa.org]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진흥팀 직무발명활성화사업 담당자 [Tel. 02-3459-2850]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 http://employeeinvention.net]

※ 본 과정은 특허청 직무발명활성화사업에 의해 정부지원으로 수행되는 사업입니다.

※ 수행된 직무발명 컨설팅 중 일부 기업의 상담내역이 모범사례로 발굴되어, 상담 내용이 직무발명활성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안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촉진과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창조적인 기술개발 유도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목적

-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촉진
-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보상문화 정착 및 사전 분쟁 예방
- 직무발명을 통한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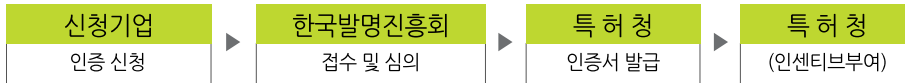
인증제 개요

- 직무발명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정부 지원 사업 참여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신청 자격

-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사실이 있는 중소기업·중견기업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에 따른 중견기업

인증 절차



인증심의기준

- 평가 기준 : 직무발명보상규정(20점), 보상실적(40점), 운용의 합리성(40점)
- 인증 기준 : 인증심의회위원회를 구성, 심의 결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적합 의결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특허, 실용신안 우선심사 대상 자격부여
-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가점부여
(특허청) 민간 IP-R&D 연계전략 지원사업,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지원사업,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등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제품공정 개선기술 개발사업 등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 인증 중소기업의 4~6년분 등록료 감면(2년간)(2014.03.01.일부터 적용)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14년 3월 3일부터 연중 수시접수 (발급수수료 : 무료)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온라인신청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 참여마당 → 사업신청)
- 신청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진흥팀 (02-3459-2845, 2793 / e-mail : 2845@kipa.org)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캠퍼스 2014년 교육일정표

(단위: 원)

지식재산 일반교육				
번호	일자	과정명	환급/지원	수강료(회원사)
1	02.12~02.14	지식재산권 기초 1기	노동부 환급 15~20% 환급	각 과정당 55만(48만)
2	02.19~02.21	미국특허출원 및 중간사건 대응전략 1기		
3	02.26~02.28	기술이전 및 라이선싱 계약서 작성 실무 1기		
4	03.05~03.07	특허청구범위 해석 방법과 침해판단 1기(전기·전자·기계)		
5	03.05~03.07	특허청구범위 해석 방법과 침해판단 1기(화학·생명·바이오)		
6	03.19~03.21	특허 검색기초 및 특허성 판단 1기		
7	03.26~03.28	주요국(IP5) 특허출원 및 OA 절차 1기		
8	04.02~04.04	특허명세서 작성 및 리뷰 SKILL UP 1기(전기·전자·기계)		
9	04.02~04.04	특허명세서 작성 및 리뷰 SKILL UP 1기(화학·생명·바이오)		
10	04.09~04.11	미국특허분쟁 및 소송 대응전략		
11	04.23~04.25	특허기술가치평가 실무		
12	05.14~05.16	지식재산권 기초 2기		
13	05.21~05.23	강한 디자인 창출 및 출원전략(도면까지)		
14	06.18~06.20	강한 상표를 위한 출원 및 사업화전략(브랜드마케팅까지)		
15	06.25~06.27	특허정보검색 및 특허맵 구축전략		
16	08.27~08.29	지식재산권 기초 3기		
17	09.03~09.05	미국특허출원 및 중간사건 대응전략 2기		
18	09.17~09.19	특허청구범위 해석 방법과 침해판단 2기(전기·전자·기계)		
19	09.17~09.19	특허청구범위 해석 방법과 침해판단 2기(화학·생명·바이오)		
20	09.24~09.26	기술이전 및 라이선싱 계약서 작성 실무 2기		
21	10.06~10.08	특허 검색기초 및 특허성 판단 2기		
22	10.15~10.17	특허명세서 작성 및 리뷰 SKILL UP 2기(전기·전자·기계)		
23	10.15~10.17	특허명세서 작성 및 리뷰 SKILL UP 2기(화학·생명·바이오)		
24	10.22~10.24	주요국(IP5) 특허출원 및 OA 절차 2기		
25	11.05~11.07	지식재산권 기초 4기		
소계		25회	-	-

• 노동부 : 사업주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고용보험 가입대상자면 누구나 교육비의 약 15%~20% 환급)



한국지식재산센터



제1교육장



제2교육장



교육생 휴게실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캠퍼스 2014년 교육일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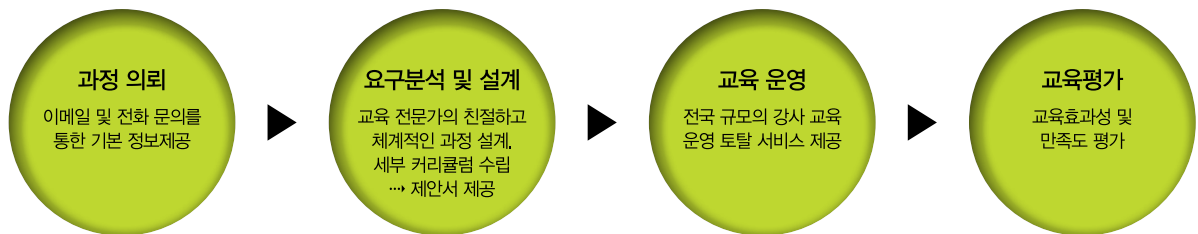
(단위: 원)

지식재산 특별교육			
번호	일자	과정명	수강료(회원사)
1	03.14	해외 특허출원 비용 및 기일관리 전략 1기	각 과정당 18만(15만)
2	04.18	중국진출 기업의 IP사례	
3	05.02	사례를 통한 특허분쟁 예방 및 대응전략	
4	05.28	유럽의 IP이슈	
5	06.05	영문 지식재산권 용어 및 영문레터 작성 노하우 1기	
6	06.13	PCT 출원마스터	
7	07.04	직무발명 신고 및 보상절차, 보상액 산정	
8	07.11	특허소송 시 변론능력 SKILL UP	
9	08.08	모바일 관련 지식재산권 전략	
10	08.18	IP R&D(제품수명 주기에 따른 특허전략)	
11	08.22	해외 특허출원 비용 및 기일관리 전략 2기	
12	09.12	영문 지식재산권 용어 및 영문레터 작성 노하우 2기	
13	10.02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14	10.28	각국별 상표출원 및 마드리드 출원전략	
15	11.27~11.28	특허법원 최신판례 동향(판사초청)	
소계		15회	-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교육			
번호	일자	과정명	수강료
1	5월 중	특정 주제를 심도 깊게 다루는 최소 10일 이상의 장기교육과정 (주제 및 일정은 추후공지)	추후공지
2	9월 중		추후공지
소계		2회	-

지식재산 국제교육			
번호	일자	과정명	수강료
1	4~5월 중	지식재산 실크로드_이스라엘(해외연수)	추후공지
소계		1회	-
합계		43회	

맞춤형 단체위탁교육



- 상기 교육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http://www.ipcampus.net>)
- 회원사: 한국발명진흥회 회원사의 경우 할인가 혜택 제공

2014년 『대학 교수를 위한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T3)』 운영계획 공고



컨설팅 개요

지식재산권 창출의 핵심인력인 대학 교수의 지식재산권 역량강화 및 중장기적 대학별 자립형 지식재산 강의 기반 구축

과정별 교육안내

단기집중 교육과정	찾아가는 교육과정	주요학회 학술대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준별 집체교육 · 연 4회, 8개 세부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방문교육 (9월~11월) · 2개 대학 선정, 최대 16시간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회 내 지식재산 세션 운영지원 (4월~9월) · 5개 학회 선정

● 단기집중 교육과정 연간일정

과정명(일정)		프로그램(내용)
봄	초급	지식재산권 초급 (4. 21 ~ 4. 23) 창의적 연구개발 기법(Triz) 및 지식재산권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입문 * 직무발명제도, 영업비밀, IP R&D 내용 포함
	중급	유망 지식재산권 창출전략 (4. 23 ~ 4. 25) 강한 특허 창출 전략, 회피 설계 방안 소개 (팀 프로젝트 : 청구항 비교 분석 표 작성)
여름	중급	특허정보조사 · 분석 (8. 18 ~ 8. 20) 특허검색 DB 소개 및 활용 방법, 특허기술 검색식 작성 노하우, 특허 data 가공방법 및 특허 분석 방법 (개인 프로젝트 :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작성)
	고급	강한 특허를 위한 청구범위 작성 (8. 20 ~ 8. 22) 특허요건, 명세서의 개요, 특허 청구범위 작성 및 분석, 주요 거절이유 소개 및 대응방법(개인 프로젝트 : 특허 청구범위 작성)
가을	초급	지식재산권 초급 (10. 20 ~ 10. 22) 창의적 연구개발 기법(Triz) 및 지식재산권(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입문 * 직무발명제도, 영업비밀, IP R&D 내용 포함
	중급	해외 특허 제도 (10. 22 ~ 10. 24)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 특허제도
겨울	중급	특허기술 가치평가 및 라이선싱 (12. 15 ~ 12. 17) 특허기술 가치평가 방법 소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팀 프로젝트 : 특허기술 가치평가)
	고급	지식재산 마스터 과정 (12. 17 ~ 12. 19) 지식재산 컨텐츠 개발, 교수법 소개 (개인 프로젝트 : 한학기 분량 강의안 제작)

* 상기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참여인원, 장소 등은 과정별 교육 시작 1개월 전 공지예정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www.iphuman.or.kr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각 교육 시작 1개월 전
- 문 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팀 ☎ 02-3459-2803
- ※ 세부 과정별(단기집중 과정, 찾아가는 과정, 학회지원) 내용은 추후 공지

2014 Campus Patent Strategy Universiade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목적

대학의 실용적인 특허교육 확대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산업계에 공급하기 위함

경진부문

- 선행기술 조사부문(32문제)
- 특허전략 수립부문(21문제)

참가자격

- 국내 대학 대학(원)생
- 선행기술 조사부문 : 개인으로 참가
- 특허전략 수립부문 : 팀(3명 이내, 동일대학) 또는 개인으로 참가
지도교수 1인(복수팀 지도 가능) 필요

신청접수 및 문의

- 신청기한 : 2014년 3월 26일(수) ~ 4월 28일(월) 18:00 까지
- 신청방법 : 대회 홈페이지(www.patent-universiade.or.kr)에서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문 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팀(02-3459-2835, 2833)

시상내역

구분	선행기술 조사부문	특허전략 수립부문	
		학생	지도 교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1명 (3백만원)	1팀 (1천만원)	1명 (5백만원)
한국공학한림원회장상	-	1팀 (1천만원)	1명 (5백만원)
특허청장상	3명 (문제당 2백만원)	4팀 (문제당 8백만원)	4명 (문제당 5백만원)
특별상 (WIPO사무총장상)	1명 (1백5십만원)	1팀 (7백만원)	-
후원기관장상	우수상 문제당 1명 (1백만원)	문제당 1팀 (6백만원)	-
	장려상 문제당 2명 (5십만원)	문제당 2팀 (2백만원)	-
최다응모대학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	1개 대학(1천만원)		
최다수상대학상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장상)	1개 대학(1천만원)		
총상금	최대 3억 7천 6백 5십만원		

- ▶ 대회 설명회 : 4월 11일(금) 16시 한국발명진흥회(19층)
- ▶ 사전 교육 운영 : 방문형 교육 : 수시
집합형 교육 : 선행5월9일(금)/전략6월25일(수)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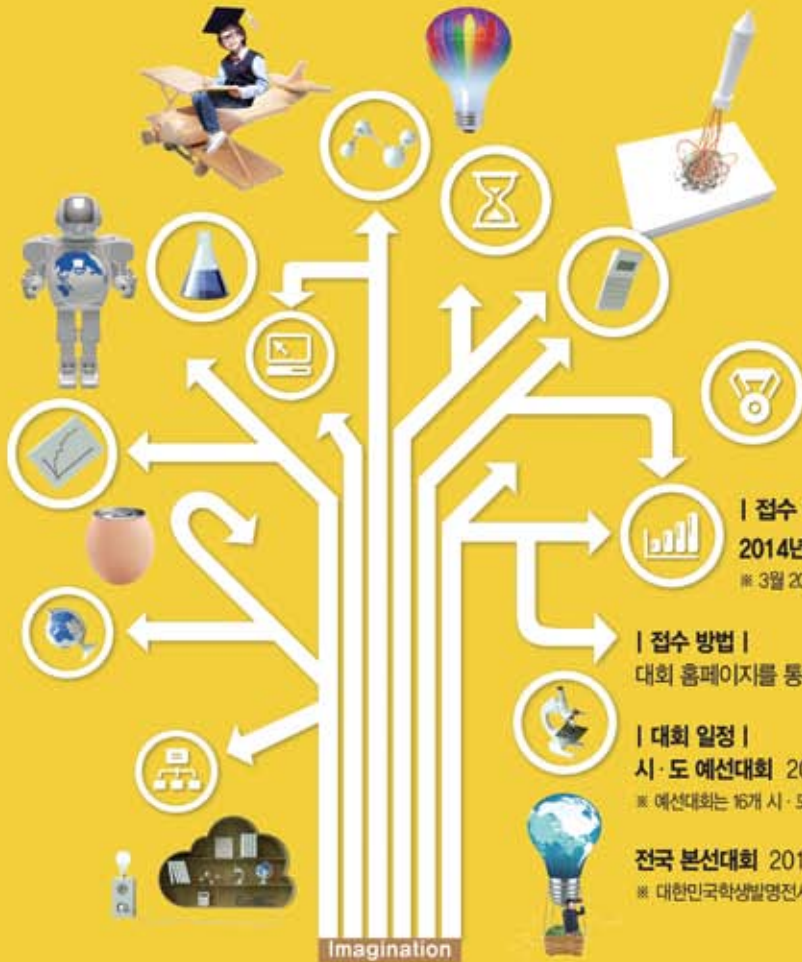
주최 : 특허청, NAEK 한국발명진흥회 주관 : 한국발명진흥회

후원 : SAMSUNG 삼성전자, 한화케미칼, 현대자동차, LOTTE CHEMICAL, LG전자, LG화학, LG 디스플레이, POSCO, 서울산업대학교, INOSAN 인오산, 현대중공업, SK하이닉스, 삼성중공업, 연대삼호중공업, 한양중공업, 연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 SHINAsb, DAE SUN, KIPSCO, 현대제철, SK hynix, LG실트론, 녹십자, kt, SAMSUNG 삼성전자, SAMSUNG 삼성전자, Kiturami 귀뚜라미, HJUN 알진디스플레이, KMAC 게이맥푸드사, BOREM 보렘, KJT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ARI 한국과학기술연구원,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 KRISs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ERI 한국과학기술연구원, JUSUNG 고려이연주식회사, INOSAN 인오산중공업, HUROM 포스코특수강, KORES,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14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상상과 도전으로
미래를 창조하라”



| 접수 기간 |

2014년 3월 20일(목)~4월 30일(수) 18:00 마감
※ 3월 20일 대회홈페이지를 통해 대회문제 및 개최요강 공지

| 접수 방법 |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www.koscc.net

| 대회 일정 |

시·도 예선대회 2014년 6월 14일(토)

※ 예선대회는 16개 시·도별 발명인재육성협의회 주관/대회장소 등 시도별 별도 공지예정

전국 본선대회 2014년 7월 24일(목)~26일(토) (장소:서울 코엑스)

※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YIF(청소년발명가프로그램) 동시 개최



특허행정 정부 3.0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 공공정보 적극 공개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KIPRIS를 통한 지식재산 공공정보 개방 확대 및 활용 장려

1. 맞춤형 정보제공 범위 확대를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기여
2. KIPRIS를 이용하여 우리 지식재산의 해외보호 기능 강화



지식재산정보의 민간 개방·활용 촉진 [KIPRIS PLUS 플랫폼 구축]

1. Open API를 통한 실시간 정보 제공으로 정보 활용 대폭 증가
2. 산업재산권 정보 이용 수수료 인하



표준특허의 대중화 및 창출기반 강화

1. 표준특허 유관기관과 연계된 온/오프라인 교육 제공
2. 주요표준화기구 및 특허풀 표준특허 통계 제공/ 표준특허 상세정보 제공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사업강화

1. 지경부, 방통위 등 R&D 연구기획에 총 21개 과제 반영
2. 산·학·연 대상으로 특허관점의 유망기술 선정 결과 발표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한 대학·공공(연) 특허기술 사업화 성과 창출

1. 특허경영전문가 파견 종료된 23개 기관의 기술 실적 향상
2. 미래부와 특허청의 부처 간 칸막이 제거 협업 성공 사례



부처간 협업을 통한 특허미생물의 국가 안전관리체계 구축

1. 특허미생물 통합보존을 위한 특허청&농진청 협업
2. 출원인 및 연구자의 불안감 해소를 통한 만족도 제고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 정부 내 칸막이 해소



수요자 맞춤형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 지원

1. 특허청&미래부가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화 및 사업화 추진 중
2. 아이디어 보호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등 기반 구축



신용보증기금과의 특허평가정보 공유를 통한 창조금융 활성화

1. 신용보증기금의 지식재산담보대출 실시
2. 행정 편의성 제고 위한 IP금융연계 지원 시스템 구축

나에게 **꼭** 맞는 취업 정보 쉽게 찾을 수는 없을까요?

최신 채용정보와 지식을 공유 할 수 있는
지식재산 인재들을 위한 취업포털 사이트에
지금 바로 접속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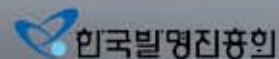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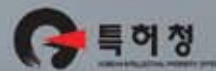
ipin (www.ipin.or.kr)에는

인재가 희망하는
지식재산기업 채용정보와
기업이 원하는 지식재산 인재정보로
가득합니다.



ipin 제공서비스

- ▶ 지식재산분야 채용 및 인재정보
- ▶ 지식재산분야 최신뉴스 및 교육/행사정보
- ▶ 각종 지식재산 정보와 취업 노하우 공유
- ▶ 언제 어디서나 보다 쉽게 만나는 모바일
IPIN(m.ipin.or.kr)



남극

지구상의 마지막 미개척 대륙,
과거의 비밀을 간직한 자연과학의 거대 실험장,
막대한 자원을 보유한 기회의 대륙!

우리나라의 두 번째 남극기지 “장보고과학기지”를 통해
극지의 무한한 가능성과 가치를 발견하여
극지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하겠습니다.



■ 기지 개요

- 위치 : 동남극 빅토리아랜드 테라노바만
- 기간 / 총사업비 : 2006 ~ 2014년 / 1,067억원
- 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4,458㎡
(건물 16개동 및 시설·장비 24개소)
- 수용인원 : 동계 15명, 하계 60명

■ 활용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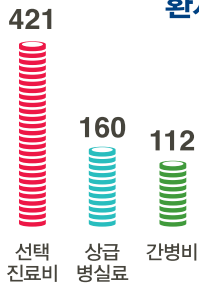
- 남극대륙 중심의 기후변화(빙하, 대기과학, 지체구조, 생태계 변화 등), 우주과학(고층대기, 운석, 우주 생물 등) 연구 중점 수행
- 본격적인 남극 내륙 진출의 허브기지로 활용

3대 비급여 비용 경감 효과

- 전이성 위암 환자 사례 -

기존

환자 100% 부담



693만원 ('14년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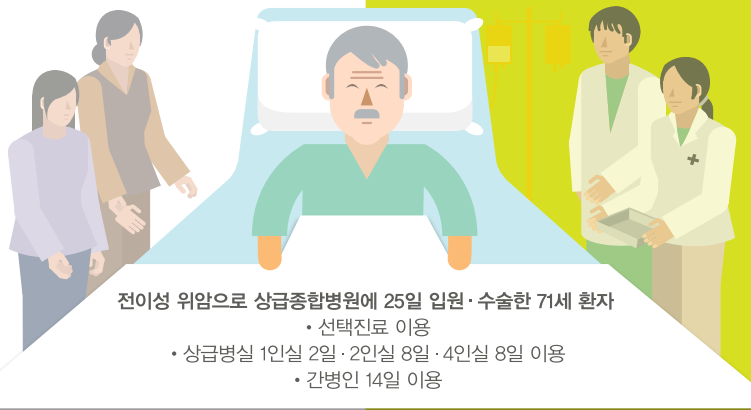
총 부담금
66% 경감

개선

건강보험 적용



234만원 ('17년 기준)



421 만원
2014년 상반기

• 전액 100% 환자 부담



선택진료비

152 만원 2017년 기준

- 2014년 하반기 | 추가비용 35% 축소로 약 274만원 부담
- 2015~2016년 | 선택의사 축소로 일반진료 기회 확대
- 2017년 | 남은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152만원 부담

2014년 상반기 160 만원

- 1, 2, 4인실 사용한 18일 간은 상급병실료 전액 부담



상급병실료

46 만원 2017년 기준

- 2014년 하반기 | 4인실 건강보험 적용
- 2015년 | 상급종합병원 2인실 일부 건강보험 적용
- 상급종합병원 2인실은 일부만 일반병상으로 전환

2014년 상반기 112 만원

- 25일 중 주말 등 제외하고 14일간 간병인 고용시 하루 8만원, 총 112만원 환자가 전액 부담



간병비

36 만원 (시범사업기준) 2017년 기준

- 간병인은 병원의 포괄간호서비스로 제공하여 질 향상
- 포괄간호서비스 제공병원 이용시 50% 부담
- 포괄간호서비스 수가 3만원 가정시 본인부담 36만원

제 8 회

지식재산능력시험



21세기는 지식재산시대!
IPAT으로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세요.

제8회 시험
5월24일

IPAT 실시요강

※ 지식재산능력시험이란?

1. 발명진흥법상 법인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의 한국의 대표 지식재산
(Intellectual Property) 능력검정시험
2. 지식재산의 기본지식과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시험 (객관식 5지선다형, 60문제)
(990점 만점, 등급 병기)

자세한 사항은 www.ipat.or.kr에서 확인하세요.

- | | |
|-------------|--|
| ▪ 시 험 대 상 |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자 |
| ▪ 시 험 일 시 | 2014. 5. 24 (토) 11:00 ~ 12:20 |
| ▪ 시 험 장 소 |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강원 등 전국 주요도시 |
| ▪ 접 수 기 간 | 2014. 4. 21(월) ~ 5. 8(목) 18시까지 |
| ▪ 성 적 발 표 일 | 2014. 6. 9 (월), 홈페이지 공지 |
| ▪ 응 시 료 | 20,000원 (개인), 15,000원 ~ 18,000원 (단체) |
| ▪ 시 험 활 용 | 한국발명진흥회 (공공기관) 신입직원 채용시 우대 및 승진시험
직무교육에 적용, 공기업, 지식재산업계, 기업 및 연구소에서
동 시험에 참여 중 |
| ▪ 시 험 문 의 | 한국발명진흥회 IPAT 시험 본부 (02-3459-2777) |

www.ipat.or.kr

 한국발명진흥회

국민이 행복해지는 대형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청년 창업 붐 조성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구축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대국민 청년 창업 오디션 프로그램 실시

새로운 직업 만들기



1.1만개

2013



유망직업
500개 추가

2017

중견기업 육성

1,422개



2013

4,000개



2017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서비스산업 R&D 투자확대 ('13년 767억원 → '17년 1,400억원)
의료·교육·보건분야 규제 완화

사회적기업 확대



2012



2017

사회적경제 고용규모 '12년 0.4% → '17년 2.0%

황사·미세먼지 통합 예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나도 다녀 오겠습니다당~



딸~ 오늘 미세먼지 심하대. 밖에 있을 땐 꼭 써.

응,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홈페이지 보고 알려주셔서, 걱정하지마~



홈페이지?



에이~ 엄마는 기상청 홈페이지랑 대기오염 정보 홈페이지 몰라?

난 아는데~



그으래? 엄마 몰랐네?



기상청에 환경·기상 통합 예보실이 생기는 것도 엄마 몰랐어.



바보야, 엄마는 뭐든지 다~ 안다구!

도억



아들~ 뽕점파리 시험지 숨겨둔 것 때문에 그래? 알은 바로 얘기해~!

힘이잉~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전국 주요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고궁 등 무료·할인 관람!



아이들과 우리 역사문화 탐방하기

4대 고궁, 종묘, 조선왕릉에서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무료로 입장하세요.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전국 국공립박물관의 전시를 무료로 관람하세요.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자체특별전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요.



영화·공연·스포츠를 자유롭게 즐기기

국립공연시설 및 국립예술단체 공연장에서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 등 국립공연시설과 국립예술단체의 공연을 특별할인가에 관람할 수 있어요.

주요 영화관, 경기장에서

영화*와 스포츠 관람을 할인받아 즐기세요. *문화가 있는 날 당일 저녁 6시~8시 사이 상영 영화 1회분 한정



고품격 지식문화를 즐기기

도서관에서

전국 국공립 도서관을 야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인문학 강좌 등 문화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요.

기타 국립문화시설에서

국립과학관(중앙, 과천, 서울, 대구)과 국립수목원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문화가 있는 날' 웹페이지(<http://www.culture.go.kr/wday>)를 참고하세요.

넓게 들겠습니다. 빠르게 알려겠습니다!

[자료 출처] 문화융성위원회 (www.pcce.go.kr)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대한민국 정부



인포그래픽스

안전하고 풍요로운 바다 해양수산부의 의지이자 약속입니다.

유류오염사고로 검게 물든 바다가 국민들의 마음까지 번지지 않도록
유류 사고에 대해 가장 먼저 예방하고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보상·복구는 신속하게, 예방은 철저하게
안전하고 풍요로운 바다로 만들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고통을 함께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해상급유의 안전관리, 유류부두의 안전성 강화, 관제구역과 감독관제도를 통한 항만 내외의 안전사각지대 해소, e-Navigation을 활용한 해양 재난 예측·예방시스템 도입을 통해 유류 안전사고의 예방대책을 실천하겠습니다.

www.kipa.org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창조와 도전으로 반짝이는
'발명특허'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